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72호 【루게 제24685호】 부제 103(2014)년 9월 29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시의 모범적인 인민반장 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이는데 이바지하고있는 평양시의 모범적인 인민반장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신 감사가 중구역 동안2동 31인민반장 박재화, 만경대구역 철골2동 8인민반장 구명숙, 대동강구역 문수3동 33인민반장 리옥실, 삼석구역 성문2동 55인민반장 김옥실, 보통강구역 붉은거리3동 16인민반장 김애숙, 대동강구역 청류3동 64인민반장 강명희, 동대원구역 삼마1동 62인민반장 라옥화, 서성구역 서천동 40인민반장 리선희에게 전달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머니로 천세만세 높이 모셔갈 철석의 신념을 간직한 인민반장들은 금수산태양궁전을 보다 훌륭히 꾸리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과 태양상, 가정들에 모신 태양상

초상화를 더 밝고 정중히 모시는 사업에 충정을 바쳐왔다.

이들은 당의 승고한 인민편을 따라배워 주민들의 생활을 따듯이 돌봐주어 인민반원들속에서 우리 인민반장으로 불리우고있으며 인민반을 화목하고 단합된 집안으로 만들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높이 발양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또한 인민반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을 알뜰히 꾸리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힘있게 불려일으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아안은 영광을 지닌 인민반장들은 언제 어디서나 일관단심 우리 당을 굳게 믿고 따르며 동, 인민반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갈 열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조선로동당 베닌 정계 인사 답화 발표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 알리 후두가 23일 답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곧 조선로동당창건 69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셨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새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고 령도하시면서 독창적인 당건설사상과 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당을 중앙부터 꾸리는 방식으로 창건하였으나 주석께서는 혁명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지니시고 그들속에 깊이 들어가 기층당조직을 내오는 방법으로 당창건의 기초를

쌓으시었다.

이렇게 마련된 튼튼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가 있었기에 나라가 해방된 직후인 194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이 창건되게 되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존엄로운 사회주의집권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지난 세기말 여러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집권당들이 붕괴될 때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당건설과 활동에서 나타는 제반 리론실천문제들에 명확한 해답을 주시었다.

그이의 로작들은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혁명적당창건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오도록 하는 귀중한 지침으로, 교과서로 된다.

김일성주석께서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김정은원수님의 의하여 더욱 빛나고 있다.

나와 베닌사회주의당의 전체 당원들은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령도덕에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사설 석탄중산투쟁에서 청년들이 앞장에 서자

2. 8직동청년투쟁 청년전위들이 지퍼울린 사회주의중산투쟁의 불길 이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탄광부문의 청년들이 용기백배하여 중산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으며 전국의 청년들이 석탄생산에 애국의 마음을 합쳐가고있다.

당과 조국의 부름에 심장으로 화답해나서는 이런 미더운 청년전위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의 크나큰 자랑이며 힘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김일성애국주의로 슬금슬금 걸음을 실천해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비상한 애국적열의와 무한대한 정신력, 담대한 배짱을 믿고 강성변영의 설계도에 새 화살표를 그려나갑니다.》

청년들은 강성국가건설의 가장 활력 있는 부대, 총진군대의 척후대이다. 더운 피 땀 흘려 흘리는 청년들이 정신이 번쩍 들게 총진군의 나팔소리, 목소리를 높이 울리며 기세올려 나가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생기와 열정이 차넘치고 혁신적성과가 이룩될 수 있다. 오늘날 당의 의도대로 석탄산을 높이 쌓고 화력발전소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도 중요하게 청년들의 선봉적, 돌격적역할에 달려있다.

지금 2. 8직동청년투쟁의 청년들은 사회주의중산투쟁을 호소하는 기세로 생산돌격전을 맹렬하게 벌리고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군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 임명이 청년들의 가슴마다에 파 차넘치고있다. 수많은 청년들이 자기 교대를 끝까지도 작업열정을 비롯하여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맡아 청년들적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공무직장, 수리직장을 비롯한 보강부문의 청년들도 경망당과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이런 헌신적이며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지금 2. 8직동청년투쟁에서 석탄생산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각지의 화력발전소들에서 더 많은 석탄을 요구하고있다. 석탄은 광부 보장해달라, 그러면 전력생산은 문제 없다, 이것이 화력발전소로제공급의 절절한 호소이다.

척후대의 기분사명은 용감무쌍한 청년들의 위훈자들이 오늘의 김정은시대 청춘들의 투쟁을 지지하고있다.

모든 청년들은 2. 8직동청년투쟁 청년전위들의 피땀은 호소로 화답하며 사회주의중산투쟁의 불길, 애국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야 한다. 착상을 해도 자기 머리로 우리의 뜻이 당정책을 실현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지니야 한다.

당지 사관관철, 당정책을 실현하여 우리의 밝은 미래가 있고 최후승리를 가리켜, 당의 부름에! 이것이 우리 청년들의 가슴마다에 울림이 되어야 한다. 착상과 결실을 이루는 것은 청년들이 해야 할 애국의 열정이다. 석탄중산으로 당정책을 옹위하고 조국의 전진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려는 결사의 정신이 청년들이 있는 탄전마다에 파 차넘쳐야 한다.

사회주의중산투쟁에서 조선청년의 불굴의 기개와 본래를 남김없이 펼쳐나간다.

용감성은 청춘의 대명사이다. 피땀은 청춘시절에는 창공에 치솟는 포부와 리상을 지니고 세상이 좀더하게 일만큼 벌리고 단숨에 산악으로 옮기고 날바다로 메우면서 시대를

위훈드는 것이 있어야 한다.

석탄공업부문의 청년들은 오늘의 중산투쟁에서 기어이 영웅으로 우뚝 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될 비상한 각오와 열정을 안고 분발하여야 한다.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한 청년대대로조지사의 청년전부들처럼 그날계획은 반드시 그날로, 그것도 2배, 3배이상 넘쳐 수행하려는 강한 일의욕과 불같은 투지가 세계를 맥박쳐야 한다. 석탄생산에서 어렵고 힘든 모퉁이들을 청년들이 맡아 돌봐주어 열매를 맺어야 한다. 먼 후날 청춘시절을 멋있게 마무리하여 애국적열의의 뚜렷한 자욱을 새겨야 한다.

오늘의 사회주의중산투쟁은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추동되는 집단적혁신운동이다.

지금 인민군인들은 당에서 과업을 주면 무슨 일이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단숨에 해결하고있다. 착상을 해도 자기 머리로 우리의 뜻이 당정책을 실현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지니야 한다. 착상과 결실을 이루는 것은 청년들이 해야 할 애국의 열정이다. 석탄중산으로 당정책을 옹위하고 조국의 전진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려는 결사의 정신이 청년들이 있는 탄전마다에 파 차넘쳐야 한다.

당지 사관관철, 당정책을 실현하여 우리의 밝은 미래가 있고 최후승리를 가리켜, 당의 부름에! 이것이 우리 청년들의 가슴마다에 울림이 되어야 한다. 착상과 결실을 이루는 것은 청년들이 해야 할 애국의 열정이다. 석탄중산으로 당정책을 옹위하고 조국의 전진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려는 결사의 정신이 청년들이 있는 탄전마다에 파 차넘쳐야 한다.

사회주의중산투쟁에서 조선청년의 불굴의 기개와 본래를 남김없이 펼쳐나간다.

용감성은 청춘의 대명사이다. 피땀은 청춘시절에는 창공에 치솟는 포부와 리상을 지니고 세상이 좀더하게 일만큼 벌리고 단숨에 산악으로 옮기고 날바다로 메우면서 시대를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탄전이 들끓는다, 생산성과 계속 확대

북창지구 탄광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력공업, 석탄공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합니다.》

석탄생산은 앞세워 전력을 증산할 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그 관철에 떨쳐나선 북창지구 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석탄중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현지 기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는것이 자기의 의의와 중요성을 일군들과 탄부들의 가슴속에 깊이 심어주기 위한 최선책으로 석탄중산의 앞장에서 기세올려 나가기 위하여 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석탄중산에 대한 열의를 내어 석탄중산에 위한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설비, 자체, 부속품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작전을 주도해나가기 위하여 석탄중산의 앞장에서 기세올려 나가기 위하여 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석탄중산에 대한 열의를 내어 석탄중산에 위한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3명, 5명의 탄부들은 사회주의 중산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교대 교대를 돕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9월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1명과 2명의 탄부들도 대동맥기지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 줄 불같은 열의를 안고 생산돌격전을 드세게 벌려 매일 계획보다 더 많은 석탄을 캐내고있다.

남덕탄광에서는 일군들과 탄부들이 석탄중산에서 편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탄광에서는 지난 8월 말까지 년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10명의 일군들과 탄부들의 일본새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면서 모든 갱들에서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고있다. 그리하여 2명의 탄부들은 매일 계획보다 1.3배의 석탄을 생산하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9명에서도 부닥치는 난관을 맞아나타나고있다. 높이 세운 9월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다. 가족들도 석탄중산투쟁에 떨

쳐나선 탄부들을 힘있게 돕고있다.

회안탄광과 송남청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석탄중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회안탄광의 2명, 탄중중대들의 탄부들이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생산성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히 1명, 2명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높이 세운 석탄생산목표를 기어이 수행하기 위하여 교대가 파도 없는 치열한 전투를 벌려 9월 석탄생산계획을 끝냈다.

송남청년탄광 2명의 탄부들도 9월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송남탄광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당이 제시한 석탄생산 목표를 돌파하기 위해 떨쳐나선 탄부들에게 더 많은 부속품을 보내 주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려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청천강계 탄식발전소 건설장에 보내줄 발전기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중요한 과원에서 사과따기 한창

북청군 룡전과 수농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군당 위원회, 군수주석경쟁위원회 등의 일군들은 새 품종의 사과나무 재배기술을 완성하며 비배관리를 간직하여 과일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으로 농업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었다. 허명, 서기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사과 품종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화산식생지 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앞채 메고 돌봐주어 열매를 얻었다.

농장에서는 파수밭들에 집종은 유기질거름과 흙보산비료를 많이 내어 지력을 높이고 과일 나무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갔다. 리필승, 리용산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케넨이 없는 왕가들이 들고 고온이 계속되는 불리한 날씨조건에서 물주기와 김매기, 병해충피해막이를 비롯한 사과나무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간직해 하기 위한 조직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농장에서는 모두가 떨쳐나갈 포를 파고 물랑크와 양수장을 보수하고 트랙터로 의한 관수와 비배관리에 대한 방울식관수를 배합하여 가뭄피해를 막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었다.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사과 품종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화산식생지 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앞채 메고 돌봐주어 열매를 얻었다.

농장에서는 파수밭들에 집종은 유기질거름과 흙보산비료를 많이 내어 지력을 높이고 과일 나무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갔다. 리필승, 리용산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케넨이 없는 왕가들이 들고 고온이 계속되는 불리한 날씨조건에서 물주기와 김매기, 병해충피해막이를 비롯한 사과나무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간직해 하기 위한 조직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농장에서는 모두가 떨쳐나갈 포를 파고 물랑크와 양수장을 보수하고 트랙터로 의한 관수와 비배관리에 대한 방울식관수를 배합하여 가뭄피해를 막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었다.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황해북도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 경쟁열풍을 실속있게 벌려야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극성을 높이 발휘시키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대중적혁신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황해북도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사회주의경쟁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사회주의경쟁열풍을 많이 조직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있어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년초부터 뜻깊은 올해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킬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진행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책임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황해북도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 경쟁열풍을 실속있게 벌려야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극성을 높이 발휘시키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대중적혁신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황해북도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사회주의경쟁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사회주의경쟁열풍을 많이 조직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있어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년초부터 뜻깊은 올해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킬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진행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책임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황해북도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 경쟁열풍을 실속있게 벌려야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극성을 높이 발휘시키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대중적혁신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황해북도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사회주의경쟁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사회주의경쟁열풍을 많이 조직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있어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년초부터 뜻깊은 올해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킬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진행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책임



북청군 룡전과 수농장에서 사과따기 한창이다. -본사기자 찍음-

21세기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펼쳐시는 위대한 령도

평양시를 선군문화의 중심지, 사회주의선경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리상을 꽃피우는 길에서 날마다 기적과 비약이 이루어지고있는 선군문화의 중심지 우리 평양, 얼마나 값고있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이르는 곳마다 일떠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위용을 떨치고있는것인가.

위대한 년대의 상징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인민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창천거리살림집들과 룡양인민유원지, 문수물놀이장, 만경대유원지, 인민아비형상상을 비롯한 문화휴식터들...

끝없이 일떠서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바라보며 천만군민은 사회주의문명의 패기에 대하여, 어머니 우리 당이 펼쳐시는 리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가에 대하여 너무나 절감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심장이며 선군문화의 중심지인 수도 평양시를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일떠세우며 지방들에서도 건설의 열매를 일궈 오고, 시, 건설을 자기의 열매가 살아나게 특색있고 아름답게 꾸며 온 나라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훌륭히 일떠선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넓고 시원하게 뚫려있는 도로들, 푸른 주단마냥 잔디밭이 일떠서 펼쳐지고 수중이 좋은 나무들이 우거진 거리와 공원, 유원지들...

수도의 곳곳에 펼쳐진 사회주의선경, 로동당시대의 무릉도원은 바로 인민의 행복이 꽃피어나는 락원을 일떠세우시러 꽃없는 현실로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것이다.

주체조선의 심장이며 선군문화의 중심지, 조용히 불려보느라만 창천거리와

더불어 전해진 사랑의 이야기가 잊지 못할 추억을 불러온다.

소문도 없이 창천거리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수대지구 지하차도앞에서 조용히 차를 세우신것은 두해전 5월 어느날이었다.

건설을 맡은 부대지휘관이 울리는 열병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창천거리의 이채로운 풍경을 둘러보시였다.

물라보게 달린 창천거리의 모습은 바라보시는 경애하는 그이께 한 일군이 어머니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이 모셔진 만수대언덕으로 오르내리는 인민들이 이 일대가 천지개벽되었다고 감탄한다고 말씀드렸다.

그의 말을 긍정해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렇다고, 천지개벽되었다고 기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천지개벽, 이 네 글자에 담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심혈,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이 뜨겁게 안겨져 일군들의 가슴은 뭉클 젖어들었다.

자신의 한평생을 쥐어짜면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남는다고 하시며 오로지 인민을 위해 마음쓰신 어머니장군님의 이인위천의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해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건설장을 찾으셨던 우리 원수님,

그의 말을 애기로 돌아서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나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꼭 실현해야 한다고, 자신께서는 어 제말에도 끄박 새우며 어머니장군님의 방침을 다시 보고 이 주변을 한바퀴 돌아보았는데 정말 천지개벽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시였다.

어머니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할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완공의 날을 향하여 출몰하셨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건설자들에 대한 깊은 평가의 말씀이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또다시 창천거리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도 돌아보시였

다. 승강기의 안전상태를 아직은 확고히 담보할수 없었던 그때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20층 지어 45층에까지 오르시였다.

창천거리, 그것은 이 나라 천만 아들딸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어떻게 결사판철하든, 경애하는 원수님의 창조적 세계가 어떤 천지개벽을 안아오든, 인민이 주인된 나라의 참모습은 어떤것인가, 이것을 뚜렷이 보여준것으로 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우리 시대의 기념비였다.

작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1년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선 조선인민군 무장장비판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자욱이 새겨져 있다.

주체 101(2012)년 4월 뜻깊은 태양절을 앞두고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조선인민군 무장장비판매관공식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그날 무장장비판매를 돌아보시고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무장장비판매는 전지도 만점이요 설계와 시공도 만점이라고, 조선인민군 무장장비판매는 세계에 당당히 내놓고 자랑할만 한 무장장비판매라고 말씀하시였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무장장비판매 세계제일의 무장장비판매, 전지판매의 표본으로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시켜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세계안에 머릿속이게 된다. 정치사상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완전결합한 우리의 조선인민군 무장장비판매를 소리로 자랑하고싶은 흥중에 뭉클하게 된다.

수도 평양을 선군문화의 중심지로 꾸려주시러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속에 창천거리와 조선인민군 무장장비판매만이 아닌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은 일떠서게 되었다.

지금도 미림승마구락부와 문수물놀이장, 옥류아동병원을 찾으면 이곳에 오시어 평양시를 선군문화의 중

심지로 훌륭히 꾸리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어려오고 평양민속공연에서 서면 평양민속공원을 돌아보니 어머니장군님 생각이 더 간절해진다. 평양민속공원을 어떻게 결사판철하든, 경애하는 원수님의 창조적 세계가 어떤 천지개벽을 안아오든, 인민이 주인된 나라의 참모습은 어떤것인가, 이것을 뚜렷이 보여준것으로 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우리 시대의 기념비였다.

작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1년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선 조선인민군 무장장비판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자욱이 새겨져 있다.

주체 101(2012)년 4월 뜻깊은 태양절을 앞두고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조선인민군 무장장비판매관공식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그날 무장장비판매를 돌아보시고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무장장비판매는 전지도 만점이요 설계와 시공도 만점이라고, 조선인민군 무장장비판매는 세계에 당당히 내놓고 자랑할만 한 무장장비판매라고 말씀하시였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무장장비판매 세계제일의 무장장비판매, 전지판매의 표본으로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시켜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세계안에 머릿속이게 된다. 정치사상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완전결합한 우리의 조선인민군 무장장비판매를 소리로 자랑하고싶은 흥중에 뭉클하게 된다.

수도 평양을 선군문화의 중심지로 꾸려주시러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속에 창천거리와 조선인민군 무장장비판매만이 아닌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은 일떠서게 되었다.

지금도 미림승마구락부와 문수물놀이장, 옥류아동병원을 찾으면 이곳에 오시어 평양시를 선군문화의 중

심지로 훌륭히 꾸리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어려오고 평양민속공연에서 서면 평양민속공원을 돌아보니 어머니장군님 생각이 더 간절해진다. 평양민속공원을 어떻게 결사판철하든, 경애하는 원수님의 창조적 세계가 어떤 천지개벽을 안아오든, 인민이 주인된 나라의 참모습은 어떤것인가, 이것을 뚜렷이 보여준것으로 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우리 시대의 기념비였다.

작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1년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선 조선인민군 무장장비판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자욱이 새겨져 있다.

주체 101(2012)년 4월 뜻깊은 태양절을 앞두고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조선인민군 무장장비판매관공식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그날 무장장비판매를 돌아보시고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무장장비판매는 전지도 만점이요 설계와 시공도 만점이라고, 조선인민군 무장장비판매는 세계에 당당히 내놓고 자랑할만 한 무장장비판매라고 말씀하시였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무장장비판매 세계제일의 무장장비판매, 전지판매의 표본으로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시켜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세계안에 머릿속이게 된다. 정치사상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완전결합한 우리의 조선인민군 무장장비판매를 소리로 자랑하고싶은 흥중에 뭉클하게 된다.

수도 평양을 선군문화의 중심지로 꾸려주시러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속에 창천거리와 조선인민군 무장장비판매만이 아닌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은 일떠서게 되었다.

지금도 미림승마구락부와 문수물놀이장, 옥류아동병원을 찾으면 이곳에 오시어 평양시를 선군문화의 중

심지로 훌륭히 꾸리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어려오고 평양민속공연에서 서면 평양민속공원을 돌아보니 어머니장군님 생각이 더 간절해진다. 평양민속공원을 어떻게 결사판철하든, 경애하는 원수님의 창조적 세계가 어떤 천지개벽을 안아오든, 인민이 주인된 나라의 참모습은 어떤것인가, 이것을 뚜렷이 보여준것으로 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우리 시대의 기념비였다.

작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1년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선 조선인민군 무장장비판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자욱이 새겨져 있다.

주체 101(2012)년 4월 뜻깊은 태양절을 앞두고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조선인민군 무장장비판매관공식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그날 무장장비판매를 돌아보시고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무장장비판매는 전지도 만점이요 설계와 시공도 만점이라고, 조선인민군 무장장비판매는 세계에 당당히 내놓고 자랑할만 한 무장장비판매라고 말씀하시였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무장장비판매 세계제일의 무장장비판매, 전지판매의 표본으로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시켜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세계안에 머릿속이게 된다. 정치사상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완전결합한 우리의 조선인민군 무장장비판매를 소리로 자랑하고싶은 흥중에 뭉클하게 된다.

수도 평양을 선군문화의 중심지로 꾸려주시러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속에 창천거리와 조선인민군 무장장비판매만이 아닌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은 일떠서게 되었다.

지금도 미림승마구락부와 문수물놀이장, 옥류아동병원을 찾으면 이곳에 오시어 평양시를 선군문화의 중

심지로 훌륭히 꾸리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어려오고 평양민속공연에서 서면 평양민속공원을 돌아보니 어머니장군님 생각이 더 간절해진다. 평양민속공원을 어떻게 결사판철하든, 경애하는 원수님의 창조적 세계가 어떤 천지개벽을 안아오든, 인민이 주인된 나라의 참모습은 어떤것인가, 이것을 뚜렷이 보여준것으로 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우리 시대의 기념비였다.

작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1년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선 조선인민군 무장장비판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자욱이 새겨져 있다.

주체 101(2012)년 4월 뜻깊은 태양절을 앞두고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조선인민군 무장장비판매관공식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그날 무장장비판매를 돌아보시고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무장장비판매는 전지도 만점이요 설계와 시공도 만점이라고, 조선인민군 무장장비판매는 세계에 당당히 내놓고 자랑할만 한 무장장비판매라고 말씀하시였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무장장비판매 세계제일의 무장장비판매, 전지판매의 표본으로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시켜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세계안에 머릿속이게 된다. 정치사상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완전결합한 우리의 조선인민군 무장장비판매를 소리로 자랑하고싶은 흥중에 뭉클하게 된다.

수도 평양을 선군문화의 중심지로 꾸려주시러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속에 창천거리와 조선인민군 무장장비판매만이 아닌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은 일떠서게 되었다.

지금도 미림승마구락부와 문수물놀이장, 옥류아동병원을 찾으면 이곳에 오시어 평양시를 선군문화의 중

몸소 정해주신 창조적 목표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마다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창조적기적을 낳고있다.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하여 우리 조국땅에 수놓여진 일떠선 세계적인 건축물들...

하디면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인민들을 비롯한 건설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은 일떠세우고 건설에서 최전성기를 열어놓았습니다.》

어머니장군님과 열렬한 비분으로 하여 이 땅에 피눈물의 대화가 사들여진 어느날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달려온 일군들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여있다. 일군들을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이미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판철해 나가며 수령님관영 100을 맞으며 완공하여야 할 대건설에 힘을 넣을에 대한 지시를 주

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였다.

장군님의 강령국가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여야 하겠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대혁신, 대전공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하며 모든 일군들이 발이 넓도록 뛰고 또 뛰어야 한다. ...

그이의 말씀은 일군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잠시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우리는 그야말로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야 한다고, 우리는 장군님의 강령국가건설구상을 년대별로 실현해나갈것이 아니라 년대와 년대를 뛰어넘어 비약하면서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힘있게 선언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의 말씀을 전달받은 일군들은 그대의 심정에 대하여 후날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피눈물의 바다에서 일어서는것 자체가 이대이면 그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그이이사야말로 천하를 휘어잡으실 장군이시로우니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올릴때의 봄맞이로 이름높은 모란봉에 어느덧 가을이 왔다.

푸르른 하늘은 더욱 높아지고 불내, 여름내 불우리를 단장하였던 수풀들도 가을색이 비끼기 시작했다.

선군문화의 중심지 우리 평양의 자랑찬 새 모습을 여기 모란봉의 가을날에 음미해보는것은 얼마나 가슴호듯한 일인가.

평양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슴벅차게 안아보니 정말 절경은 절경이구나 하는 감안이 절로 뛰어나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당의 령도밑에 우리 조국땅에는 건설의 최전성기가 열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강령국가건설구상이 희한한 현실로 펼쳐지고있습니다.》

조선활경의 하나로 자랑말치였던 평양의 역사를 거스르려는 선군혁명병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대고조전투장들을 쉬임없이 찾오시어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안목을 뛰워주시고 당력과 슬기를 심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리상과 포부를 안았기에 이 땅의 하루하루의 승결은 세차게 놀리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세월은 흐르고흘렀지만 후손들에게 천하제일이래 자연의 그 경치밖에 물려주지 못했건대선조들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평양의 아름다움은 수려한 자연경관만이 아니다. 도시의 경치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더라도 시대의 문명이 깃들지 못하고 인민의 행복이 무르익지 않는다면 어찌 아름다

며시기 시작한다는 로동당시대가 열린 후부터가 아니었던가. 문수물에 인민의 새 거리가 솟아오르던 날들이 있었다. 평양속도창조로 동양적기둥도 크게 번모시킴으로 더욱 현대한 수도 건설구상을 펼치시어 인민사랑의 서사시를 계속 써나가시던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친히 연필로 종이위에 문수

의 주요도로와 구획들을 그으며 사색을 거듭하시고 사판까지 보아주시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손길따라 인민의 새 거리가 일떠선 문수물.

귀가울리면 오늘도 들려오는 듯싶다. 솟아오른 아파트창가에 서 흘러나오는 인민의 웃음소리를 들으시며 동무들도 저 웃음소리를 들으시며, 그전엔 개구리울음소리만 들리던 이 문수물에 오늘도 현대적인 도시가 일떠서 저렇게 창가마다에 웃음소리가 넘쳐나고있다고 하시며 크나큰 회일에 넘쳐 자리를 못뜨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음성, 격앙이 천리라고 평양의 한

모란봉에서

움을 말할수 있오.

모란봉에서 바라보이는 강건너 문수물, 우리 평양의 동부를 이루는 지역에 선군시대의 풍치를 자랑하며 눈부리 아득하게 들이앉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리의 사색을 깊어지게 하였다.

문수물, 오랜 세월 물결렁이와 창조무성한 동력이 넘쳐있던 인척드문 땅이었다. 건축조건 또한 불리한 지대였다. 근대문명의 조류가 행성의 곳곳에 밀려들던 시절에도 구데연연한 땅이었고 강토를 집어삼킨 일제가 수십년세월 이곳에 남겨놓은 흔적이란 군용비행장지리밖에 없던 곳이었다.

잠자던 이 땅이 해를 치며 일

부분을 이루면서도 강바다 분령양지구에 펼쳐지던 문명을 오래도록 넘겨다보던 동평양의 문수물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열어주시는 평양변영기는 인민의 절경을 펼쳐주었다.

하지만 오늘 문수지구는 또한한번 큰 변신을 이루어 평양의 새 모습을 펼쳐주었다. 그것은 문명 인민이 품속에서 그

가 하나하나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것이고 인민의 행복찬 문명이 이어져서 세상에 다시없는 명화로 안겨드는 문수물의 절경!

그 아름다움을 한가슴에 안고 보니 단 두해사이엔 명화폭을 문수물에 그려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이 사무쳐왔다.

문수지구가 천지개벽되었다 하시며 어느 한 단위의 형성만 해도 113건이나 지도해주시고 낱에도 찾으시고 밤에도, 이른새벽에도 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마음껏 오고 떠들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우리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승명하게 어려와 온 문수물이 격정에 설매이 는듯싶다.

문수물의 명화폭에서 울리는 위대한 리상과 창조적 시대, 번영하는 김정은시대의 승결과 음향이 풍만한 서정을 주어 우리는 모란봉을 쉬이 내릴수 없었다.

본사기자 한영민

어머니랑의 사랑속에 사회주의문명의 혜택을 마음껏 누려가는 인민의 행복 끝없다



잠 들 줄 모르는 창천거리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행복의 웃음소리 높은 룡양검둥어관 본사기자 찍음

당을 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는 신념의 강자가 되자

백옥같은 충정을 지닌 선군혁명투사들로

은률군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시하게 될 터라 같으므로 그들을 명도자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을 지닌 선군혁명투사들로 준비시켜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조직들과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김정일애국주의 교양과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을 참신하게 벌려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디.》**

지난 7월말부터 8월초사이 은률군당위원회에서는 전국 당책임일군 배두산지구 혁명적적지지도사행군대의 한 성원으로 혁명의 성지에 대한 답사를 하였다.

이 날날 그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배두의 행군길을 곳곳이 이어나가게 하자면 신념교양을 더욱 심화시켜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군에 돌아오는 그날 군안의 당조직들에서 신념교양을 진행해온 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 보았다.

가책되는바가 컸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설계하고 해왔다고 하지만 웅망한 높이에서 진행하지 못하였기때문이었다.

은산군체신소 초급당위원회에서

은산군체신소에서 빗섬유제품 공사가 진행될 때의 일이다. 공사속도가 처음보다 빠지고있을 때 초급당비서 리명수동무는 신로작업반원들이 일하는 현장을 찾았다. 작업반장 백영봉동무는 긴급한 자재구입을 위해 자리를 뜨고 없었다. 작업반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료해해보니 매일 같은 작업을 한다는데로부터 일부 작업반원들이 당개를 풀어놓고있었다. 이를 찬 공사를 언제 끝내겠는가고 우는소리를 하는 작업반원들도 있었다. 초급당일군에게는 언제 보나 성실하고 불같은 작업반장의 모습, 그가 때때로 노래 《인생의 영광》을 부르곤 하던 모습이 상상스럽게 상기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신념은 인생의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핵이다.》**

이후고 작업의 휴식장이 되자 초급당일군은 느닷없이 이런 물음을 제기하였다. 작업반장이 노래 《인생의 영광》을 남달리 사랑하며 즐겨부르던데 왜 그러는 것인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노래를 남달리 좋아해서 그런다고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노래가 담고있는 내용이 훌륭하기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초급당일군은 그 모든 대답에

은률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항일혁명투사들은 자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할 신념의 강자들이었다. 군당위원회는 우리 혁명의 가장 엄숙한 시기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혁명위업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고 명도자를 믿고 따른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세겨주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기로 하였다.

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이 사업을 한두번의 해설 당화를 하고 일반적인 호소를 하는 식으로 하지 않았다. 군에 있는 구월산혁명사적지답사를 통하여 심화시켜나갔다.

지난 8월말 군안의 350명의 일군들로 구월산혁명사적지 답사행군을 조직하고 혁명의 지휘선원들인 일군들에게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결사용위정신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기 위해서였다.

구월산혁명사적지에는 항일대전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출위정신과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 백혈불굴의 혁명정신을 보여주는 수직정치의 구호문헌과 혁명적인 사업기풍과 알뜰한 생활기풍을 보여주는 혁명유적, 유물들이 있었다.

은산군체신소 초급당위원회에서

은산군체신소에서 빗섬유제품 공사가 진행될 때의 일이다. 공사속도가 처음보다 빠지고있을 때 초급당비서 리명수동무는 신로작업반원들이 일하는 현장을 찾았다. 작업반장 백영봉동무는 긴급한 자재구입을 위해 자리를 뜨고 없었다. 작업반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료해해보니 매일 같은 작업을 한다는데로부터 일부 작업반원들이 당개를 풀어놓고있었다. 이를 찬 공사를 언제 끝내겠는가고 우는소리를 하는 작업반원들도 있었다. 초급당일군에게는 언제 보나 성실하고 불같은 작업반장의 모습, 그가 때때로 노래 《인생의 영광》을 부르곤 하던 모습이 상상스럽게 상기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신념은 인생의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핵이다.》**

이후고 작업의 휴식장이 되자 초급당일군은 느닷없이 이런 물음을 제기하였다. 작업반장이 노래 《인생의 영광》을 남달리 사랑하며 즐겨부르던데 왜 그러는 것인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노래를 남달리 좋아해서 그런다고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노래가 담고있는 내용이 훌륭하기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초급당일군은 그 모든 대답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은 이미 이룩한 승리와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한 발양시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를 압도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디.》**

나에게는 이즈음 대고조전투장에서 열세없이 들려오는 혁신적인 소식들이 단순한 탐과 노력의 결과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 하나하나가 다 원수들의 반공화국암살행동을 분쇄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성을 높이 쌓아올리기 위한 길에서 거둔 고귀한 전과들로 값지게 여겨진다.

아마도 얼마전에 안주협동공장에 취재했다가 그곳에서 받은 충격으로 하여 이러한 생각이 더 굳어지는지도 모른다. 이 공장일군들의 사업에 대한 취재를 한창 진행하던 때의 일이었다.

기술과의 한 설계원이 찾아와 일군들로부터 혼재점이 나던 이야기를 조용히 하였다. 그의 불찰로 하여 어느 한 대상건설장에 보낼 부품가공이 엉망인 질적수준에서 되지 못하였다. 많은 수량의 부품가공에서 그렇게 된것이 일부에 속한것이였기에 설계원으로서도 그 큰

은률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항일혁명투사들은 자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할 신념의 강자들이었다. 군당위원회는 우리 혁명의 가장 엄숙한 시기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혁명위업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고 명도자를 믿고 따른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세겨주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기로 하였다.

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이 사업을 한두번의 해설 당화를 하고 일반적인 호소를 하는 식으로 하지 않았다. 군에 있는 구월산혁명사적지답사를 통하여 심화시켜나갔다.

지난 8월말 군안의 350명의 일군들로 구월산혁명사적지 답사행군을 조직하고 혁명의 지휘선원들인 일군들에게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결사용위정신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기 위해서였다.

구월산혁명사적지에는 항일대전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출위정신과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 백혈불굴의 혁명정신을 보여주는 수직정치의 구호문헌과 혁명적인 사업기풍과 알뜰한 생활기풍을 보여주는 혁명유적, 유물들이 있었다.

은산군체신소 초급당위원회에서

은산군체신소에서 빗섬유제품 공사가 진행될 때의 일이다. 공사속도가 처음보다 빠지고있을 때 초급당비서 리명수동무는 신로작업반원들이 일하는 현장을 찾았다. 작업반장 백영봉동무는 긴급한 자재구입을 위해 자리를 뜨고 없었다. 작업반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료해해보니 매일 같은 작업을 한다는데로부터 일부 작업반원들이 당개를 풀어놓고있었다. 이를 찬 공사를 언제 끝내겠는가고 우는소리를 하는 작업반원들도 있었다. 초급당일군에게는 언제 보나 성실하고 불같은 작업반장의 모습, 그가 때때로 노래 《인생의 영광》을 부르곤 하던 모습이 상상스럽게 상기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신념은 인생의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핵이다.》**

이후고 작업의 휴식장이 되자 초급당일군은 느닷없이 이런 물음을 제기하였다. 작업반장이 노래 《인생의 영광》을 남달리 사랑하며 즐겨부르던데 왜 그러는 것인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노래를 남달리 좋아해서 그런다고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노래가 담고있는 내용이 훌륭하기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초급당일군은 그 모든 대답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은 이미 이룩한 승리와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한 발양시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를 압도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디.》**

나에게는 이즈음 대고조전투장에서 열세없이 들려오는 혁신적인 소식들이 단순한 탐과 노력의 결과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 하나하나가 다 원수들의 반공화국암살행동을 분쇄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성을 높이 쌓아올리기 위한 길에서 거둔 고귀한 전과들로 값지게 여겨진다.

아마도 얼마전에 안주협동공장에 취재했다가 그곳에서 받은 충격으로 하여 이러한 생각이 더 굳어지는지도 모른다. 이 공장일군들의 사업에 대한 취재를 한창 진행하던 때의 일이었다.

기술과의 한 설계원이 찾아와 일군들로부터 혼재점이 나던 이야기를 조용히 하였다. 그의 불찰로 하여 어느 한 대상건설장에 보낼 부품가공이 엉망인 질적수준에서 되지 못하였다. 많은 수량의 부품가공에서 그렇게 된것이 일부에 속한것이였기에 설계원으로서도 그 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은 이미 이룩한 승리와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한 발양시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를 압도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디.》**

나에게는 이즈음 대고조전투장에서 열세없이 들려오는 혁신적인 소식들이 단순한 탐과 노력의 결과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 하나하나가 다 원수들의 반공화국암살행동을 분쇄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성을 높이 쌓아올리기 위한 길에서 거둔 고귀한 전과들로 값지게 여겨진다.

아마도 얼마전에 안주협동공장에 취재했다가 그곳에서 받은 충격으로 하여 이러한 생각이 더 굳어지는지도 모른다. 이 공장일군들의 사업에 대한 취재를 한창 진행하던 때의 일이었다.

은률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항일혁명투사들은 자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할 신념의 강자들이었다. 군당위원회는 우리 혁명의 가장 엄숙한 시기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혁명위업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고 명도자를 믿고 따른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세겨주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기로 하였다.

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이 사업을 한두번의 해설 당화를 하고 일반적인 호소를 하는 식으로 하지 않았다. 군에 있는 구월산혁명사적지답사를 통하여 심화시켜나갔다.

지난 8월말 군안의 350명의 일군들로 구월산혁명사적지 답사행군을 조직하고 혁명의 지휘선원들인 일군들에게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결사용위정신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기 위해서였다.

구월산혁명사적지에는 항일대전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출위정신과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 백혈불굴의 혁명정신을 보여주는 수직정치의 구호문헌과 혁명적인 사업기풍과 알뜰한 생활기풍을 보여주는 혁명유적, 유물들이 있었다.

은산군체신소 초급당위원회에서

은산군체신소에서 빗섬유제품 공사가 진행될 때의 일이다. 공사속도가 처음보다 빠지고있을 때 초급당비서 리명수동무는 신로작업반원들이 일하는 현장을 찾았다. 작업반장 백영봉동무는 긴급한 자재구입을 위해 자리를 뜨고 없었다. 작업반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료해해보니 매일 같은 작업을 한다는데로부터 일부 작업반원들이 당개를 풀어놓고있었다. 이를 찬 공사를 언제 끝내겠는가고 우는소리를 하는 작업반원들도 있었다. 초급당일군에게는 언제 보나 성실하고 불같은 작업반장의 모습, 그가 때때로 노래 《인생의 영광》을 부르곤 하던 모습이 상상스럽게 상기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신념은 인생의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핵이다.》**

이후고 작업의 휴식장이 되자 초급당일군은 느닷없이 이런 물음을 제기하였다. 작업반장이 노래 《인생의 영광》을 남달리 사랑하며 즐겨부르던데 왜 그러는 것인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노래를 남달리 좋아해서 그런다고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노래가 담고있는 내용이 훌륭하기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초급당일군은 그 모든 대답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은 이미 이룩한 승리와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한 발양시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를 압도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디.》**

나에게는 이즈음 대고조전투장에서 열세없이 들려오는 혁신적인 소식들이 단순한 탐과 노력의 결과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 하나하나가 다 원수들의 반공화국암살행동을 분쇄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성을 높이 쌓아올리기 위한 길에서 거둔 고귀한 전과들로 값지게 여겨진다.

아마도 얼마전에 안주협동공장에 취재했다가 그곳에서 받은 충격으로 하여 이러한 생각이 더 굳어지는지도 모른다. 이 공장일군들의 사업에 대한 취재를 한창 진행하던 때의 일이었다.

기술과의 한 설계원이 찾아와 일군들로부터 혼재점이 나던 이야기를 조용히 하였다. 그의 불찰로 하여 어느 한 대상건설장에 보낼 부품가공이 엉망인 질적수준에서 되지 못하였다. 많은 수량의 부품가공에서 그렇게 된것이 일부에 속한것이였기에 설계원으로서도 그 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은 이미 이룩한 승리와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한 발양시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를 압도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디.》**

나에게는 이즈음 대고조전투장에서 열세없이 들려오는 혁신적인 소식들이 단순한 탐과 노력의 결과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 하나하나가 다 원수들의 반공화국암살행동을 분쇄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성을 높이 쌓아올리기 위한 길에서 거둔 고귀한 전과들로 값지게 여겨진다.

아마도 얼마전에 안주협동공장에 취재했다가 그곳에서 받은 충격으로 하여 이러한 생각이 더 굳어지는지도 모른다. 이 공장일군들의 사업에 대한 취재를 한창 진행하던 때의 일이었다.

은률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항일혁명투사들은 자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할 신념의 강자들이었다. 군당위원회는 우리 혁명의 가장 엄숙한 시기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혁명위업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고 명도자를 믿고 따른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세겨주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기로 하였다.

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이 사업을 한두번의 해설 당화를 하고 일반적인 호소를 하는 식으로 하지 않았다. 군에 있는 구월산혁명사적지답사를 통하여 심화시켜나갔다.

지난 8월말 군안의 350명의 일군들로 구월산혁명사적지 답사행군을 조직하고 혁명의 지휘선원들인 일군들에게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결사용위정신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기 위해서였다.

구월산혁명사적지에는 항일대전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출위정신과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 백혈불굴의 혁명정신을 보여주는 수직정치의 구호문헌과 혁명적인 사업기풍과 알뜰한 생활기풍을 보여주는 혁명유적, 유물들이 있었다.

은산군체신소 초급당위원회에서

은산군체신소에서 빗섬유제품 공사가 진행될 때의 일이다. 공사속도가 처음보다 빠지고있을 때 초급당비서 리명수동무는 신로작업반원들이 일하는 현장을 찾았다. 작업반장 백영봉동무는 긴급한 자재구입을 위해 자리를 뜨고 없었다. 작업반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료해해보니 매일 같은 작업을 한다는데로부터 일부 작업반원들이 당개를 풀어놓고있었다. 이를 찬 공사를 언제 끝내겠는가고 우는소리를 하는 작업반원들도 있었다. 초급당일군에게는 언제 보나 성실하고 불같은 작업반장의 모습, 그가 때때로 노래 《인생의 영광》을 부르곤 하던 모습이 상상스럽게 상기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신념은 인생의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핵이다.》**

이후고 작업의 휴식장이 되자 초급당일군은 느닷없이 이런 물음을 제기하였다. 작업반장이 노래 《인생의 영광》을 남달리 사랑하며 즐겨부르던데 왜 그러는 것인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노래를 남달리 좋아해서 그런다고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노래가 담고있는 내용이 훌륭하기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초급당일군은 그 모든 대답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은 이미 이룩한 승리와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한 발양시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를 압도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디.》**

나에게는 이즈음 대고조전투장에서 열세없이 들려오는 혁신적인 소식들이 단순한 탐과 노력의 결과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 하나하나가 다 원수들의 반공화국암살행동을 분쇄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성을 높이 쌓아올리기 위한 길에서 거둔 고귀한 전과들로 값지게 여겨진다.

아마도 얼마전에 안주협동공장에 취재했다가 그곳에서 받은 충격으로 하여 이러한 생각이 더 굳어지는지도 모른다. 이 공장일군들의 사업에 대한 취재를 한창 진행하던 때의 일이었다.

기술과의 한 설계원이 찾아와 일군들로부터 혼재점이 나던 이야기를 조용히 하였다. 그의 불찰로 하여 어느 한 대상건설장에 보낼 부품가공이 엉망인 질적수준에서 되지 못하였다. 많은 수량의 부품가공에서 그렇게 된것이 일부에 속한것이였기에 설계원으로서도 그 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은 이미 이룩한 승리와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한 발양시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를 압도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디.》**

나에게는 이즈음 대고조전투장에서 열세없이 들려오는 혁신적인 소식들이 단순한 탐과 노력의 결과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 하나하나가 다 원수들의 반공화국암살행동을 분쇄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성을 높이 쌓아올리기 위한 길에서 거둔 고귀한 전과들로 값지게 여겨진다.

아마도 얼마전에 안주협동공장에 취재했다가 그곳에서 받은 충격으로 하여 이러한 생각이 더 굳어지는지도 모른다. 이 공장일군들의 사업에 대한 취재를 한창 진행하던 때의 일이었다.

회령목재 가공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수임병은 위험한 결말들이다. **《대중의 심장속에 자기 힘이 제일이라는 확신, 자기의것을 거머잡는 것보다 훌륭하게 만들겠다는 각오와 분발심을 심어주는데서 회령목재 가공공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은 매우 교훈적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은 언제나 나약한 의의임을 버리고 자력갱생, 끈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수행해나가야 합니다.》**

회령목재 가공공장은 3000여명의 인민들이 일하는 곳이다. 자재의 힘으로 현대적인 새 건조를 만들자는 안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초급당비서 리명수동무는 이 안이 제기되었던 것을 보고, 문제는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 있다고 그들을 고무하였다. 그리고 기술사들과 함께 전문분야를 찾아가 그곳 기술사들과 만나보고 람구

회령목재 가공공장은 3000여명의 인민들이 일하는 곳이다. 자재의 힘으로 현대적인 새 건조를 만들자는 안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초급당비서 리명수동무는 이 안이 제기되었던 것을 보고, 문제는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 있다고 그들을 고무하였다. 그리고 기술사들과 함께 전문분야를 찾아가 그곳 기술사들과 만나보고 람구

회령목재 가공공장은 3000여명의 인민들이 일하는 곳이다. 자재의 힘으로 현대적인 새 건조를 만들자는 안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초급당비서 리명수동무는 이 안이 제기되었던 것을 보고, 문제는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 있다고 그들을 고무하였다. 그리고 기술사들과 함께 전문분야를 찾아가 그곳 기술사들과 만나보고 람구

회령목재 가공공장은 3000여명의 인민들이 일하는 곳이다. 자재의 힘으로 현대적인 새 건조를 만들자는 안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초급당비서 리명수동무는 이 안이 제기되었던 것을 보고, 문제는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 있다고 그들을 고무하였다. 그리고 기술사들과 함께 전문분야를 찾아가 그곳 기술사들과 만나보고 람구

회령목재 가공공장은 3000여명의 인민들이 일하는 곳이다. 자재의 힘으로 현대적인 새 건조를 만들자는 안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초급당비서 리명수동무는 이 안이 제기되었던 것을 보고, 문제는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 있다고 그들을 고무하였다. 그리고 기술사들과 함께 전문분야를 찾아가 그곳 기술사들과 만나보고 람구

회령목재 가공공장은 3000여명의 인민들이 일하는 곳이다. 자재의 힘으로 현대적인 새 건조를 만들자는 안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초급당비서 리명수동무는 이 안이 제기되었던 것을 보고, 문제는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 있다고 그들을 고무하였다. 그리고 기술사들과 함께 전문분야를 찾아가 그곳 기술사들과 만나보고 람구

회령목재 가공공장은 3000여명의 인민들이 일하는 곳이다. 자재의 힘으로 현대적인 새 건조를 만들자는 안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초급당비서 리명수동무는 이 안이 제기되었던 것을 보고, 문제는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 있다고 그들을 고무하였다. 그리고 기술사들과 함께 전문분야를 찾아가 그곳 기술사들과 만나보고 람구

회령목재 가공공장은 3000여명의 인민들이 일하는 곳이다. 자재의 힘으로 현대적인 새 건조를 만들자는 안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초급당비서 리명수동무는 이 안이 제기되었던 것을 보고, 문제는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 있다고 그들을 고무하였다. 그리고 기술사들과 함께 전문분야를 찾아가 그곳 기술사들과 만나보고 람구

회령목재 가공공장은 3000여명의 인민들이 일하는 곳이다. 자재의 힘으로 현대적인 새 건조를 만들자는 안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초급당비서 리명수동무는 이 안이 제기되었던 것을 보고, 문제는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 있다고 그들을 고무하였다. 그리고 기술사들과 함께 전문분야를 찾아가 그곳 기술사들과 만나보고 람구

회령목재 가공공장은 3000여명의 인민들이 일하는 곳이다. 자재의 힘으로 현대적인 새 건조를 만들자는 안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초급당비서 리명수동무는 이 안이 제기되었던 것을 보고, 문제는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 있다고 그들을 고무하였다. 그리고 기술사들과 함께 전문분야를 찾아가 그곳 기술사들과 만나보고 람구

회령목재 가공공장은 3000여명의 인민들이 일하는 곳이다. 자재의 힘으로 현대적인 새 건조를 만들자는 안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초급당비서 리명수동무는 이 안이 제기되었던 것을 보고, 문제는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 있다고 그들을 고무하였다. 그리고 기술사들과 함께 전문분야를 찾아가 그곳 기술사들과 만나보고 람구

회령목재 가공공장은 3000여명의 인민들이 일하는 곳이다. 자재의 힘으로 현대적인 새 건조를 만들자는 안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초급당비서 리명수동무는 이 안이 제기되었던 것을 보고, 문제는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 있다고 그들을 고무하였다. 그리고 기술사들과 함께 전문분야를 찾아가 그곳 기술사들과 만나보고 람구

의 낫과 밭도 함께 보냈다.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에서 큰 힘을 얻은 책임자와 공무작업반 기능공들은 신심에 넘쳐 전투를 벌였다. 성공의 시각은 끝내 오고야말았다. 불수호 호탕한 새 건조로 앞에서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렇게 계속으로 능히 만들 수 있는것을 왜 제작 만들 엄두를 내지 못했을까 하고. 바로 그 신심이 현대적인 건조를 제작하는데 비범한 인성성과라고 초급당비서는 생각했다. 제함을 믿고 계속으로 자기의것을 창조하는 파정에 증명된들속에서 남의것에 대한 환상, 수임병이 없어지게 된것이였다. 초급당일군들이 찾은 교훈은 컸다. 자신에 대한 믿음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것을 창조하는 파정에 굳건해나가는것을 실천속에서 확신한 그들은 또다시 새로운 목표수행에 대해 중을 불러 일으켰다.

가까운 앞날에 종합해방정치를 완성하며 가구형식도 완전히 혁신할 결심을 안고 증명원들모두가 떨쳐나섰다. 그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대답은 한가지, 자기 힘이 제일이라는것이였다. 공장의 면모도, 사람들의 정신세계도 달라지게 달라진 이 공장의 현실이 깨우쳐주는것은 무엇인가.

자기를 믿으면 강자가 되고 수임병에 걸리면 노예가 된다. 수임병을 고치는 명약중의 명약은 자기 힘에 대한 믿음, 자력갱생의 신념이다. **본사기자 김 순 영**

회령목재 가공공장은 3000여명의 인민들이 일하는 곳이다. 자재의 힘으로 현대적인 새 건조를 만들자는 안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초급당비서 리명수동무는 이 안이 제기되었던 것을 보고, 문제는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 있다고 그들을 고무하였다. 그리고 기술사들과 함께 전문분야를 찾아가 그곳 기술사들과 만나보고 람구

회령목재 가공공장은 3000여명의 인민들이 일하는 곳이다. 자재의 힘으로 현대적인 새 건조를 만들자는 안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초급당비서 리명수동무는 이 안이 제기되었던 것을 보고, 문제는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 있다고 그들을 고무하였다. 그리고 기술사들과 함께 전문분야를 찾아가 그곳 기술사들과 만나보고 람구

회령목재 가공공장은 3000여명의 인민들이 일하는 곳이다. 자재의 힘으로 현대적인 새 건조를 만들자는 안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초급당비서 리명수동무는 이 안이 제기되었던 것을 보고, 문제는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 있다고 그들을 고무하였다. 그리고 기술사들과 함께 전문분야를 찾아가 그곳 기술사들과 만나보고 람구

회령목재 가공공장은 3000여명의 인민들이 일하는 곳이다. 자재의 힘으로 현대적인 새 건조를 만들자는 안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초급당비서 리명수동무는 이 안이 제기되었던 것을 보고, 문제는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 있다고 그들을 고무하였다. 그리고 기술사들과 함께 전문분야를 찾아가 그곳 기술사들과 만나보고 람구

회령목재 가공공장은 3000여명의 인민들이 일하는 곳이다. 자재의 힘으로 현대적인 새 건조를 만들자는 안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초급당비서 리명수동무는 이 안이 제기되었던 것을 보고, 문제는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 있다고 그들을 고무하였다. 그리고 기술사들과 함께 전문분야를 찾아가 그곳 기술사들과 만나보고 람구

회령목재 가공공장은 3000여명의 인민들이 일하는 곳이다. 자재의 힘으로 현대적인 새 건조를 만들자는 안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초급당비서 리명수동무는 이 안이 제기되었던 것을 보고, 문제는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 있다고 그들을 고무하였다. 그리고 기술사들과 함께 전문분야를 찾아가 그곳 기술사들과 만나보고 람구

회령목재 가공공장은 3000여명의 인민들이 일하는 곳이다. 자재의 힘으로 현대적인 새 건조를 만들자는 안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초급당비서 리명수동무는 이 안이 제기되었던 것을 보고, 문제는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 있다고 그들을 고무하였다. 그리고 기술사들과 함께 전문분야를 찾아가 그곳 기술사들과 만나보고 람구

회령목재 가공공장은 3000여명의 인민들이 일하는 곳이다. 자재의 힘으로 현대적인 새 건조를 만들자는 안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초급당비서 리명수동무는 이 안이 제기되었던 것을 보고, 문제는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 있다고 그들을 고무하였다. 그리고 기술사들과 함께 전문분야를 찾아가 그곳 기술사들과 만나보고 람구

회령목재 가공공장은 3000여명의 인민들이 일하는 곳이다. 자재의 힘으로 현대적인 새 건조를 만들자는 안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초급당비서 리명수동무는 이 안이 제기되었던 것을 보고, 문제는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 있다고 그들을 고무하였다. 그리고 기술사들과 함께 전문분야를 찾아가 그곳 기술사들과 만나보고 람구

회령목재 가공공장은 3000여명의 인민들이 일하는 곳이다. 자재의 힘으로 현대적인 새 건조를 만들자는 안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초급당비서 리명수동무는 이 안이 제기되었던 것을 보고, 문제는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 있다고 그들을 고무하였다. 그리고 기술사들과 함께 전문분야를 찾아가 그곳 기술사들과 만나보고 람구

회령목재 가공공장은 3000여명의 인민들이 일하는 곳이다. 자재의 힘으로 현대적인 새 건조를 만들자는 안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초급당비서 리명수동무는 이 안이 제기되었던 것을 보고, 문제는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 있다고 그들을 고무하였다. 그리고 기술사들과 함께 전문분야를 찾아가 그곳 기술사들과 만나보고 람구

호프생산 지난해보다 1.2배 장성

량강도의 호프산지들에서

올해 도의 호프농장들에서 농사를 잘하였다. 모든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호프생산계획을 100% 이상 넘쳐 수행하여 지난해보다 1.2배의 호프를 수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 호프가공이 마감단계에서 다그쳐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생산은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량강명에서 생산된 호프는 수도 호프공장들의 생산자들로 부터 수요를 받고있다. 특히 배두산기술의 운송장하



류에 자리잡은 운송호프농장에서 생산된 호프는 촘촘맛을 집합량에 있어서 그 질이 아주 높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일제히 량강도에서 호프농사를 잘 지어 전국의 맥주공장들에 넘치기 보내주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에도 도의 일군들은 호프농장에 내려가 호프가공을 질적으로 다그쳐 끝내기 위한 전조조직과 지휘를 짜고있었다. 도에서는 력량과 수단을 집중하여 호프가공에 힘을 넣고있다.

올해에 운송호프농장에서는 호프꽃따기를 지난해보다 훨씬 앞당겨 끝내고 발전발동기를 비롯한 설비보수정비를 신속있게



하였다. 농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마름된 호프를 제때없이 호프건조장에 넣어 말리는것과 함께 건조장에 의한 압착, 포장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잘 보 관하고있다. 농장에서는 벌써 많은 호프를 자동차들에 실어 대동맥주공장으로 떠나보냈다. 혁신의 불길은 감산호프농장에서도 세차게 타고오고있다.

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봄내, 여름내 땀흘려가온 호프를 따들이는것을 즐겁게 하였다. 해산호프농장의 농업근로자들 모두 호프가공을 책임적으로 하여 전국의 맥주공장들에 보내줄 수 있게 하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전 철 주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를 세울 때였다. 책임자 김옥하동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새 세기의 깃이 나게 훌륭히 일대 건설전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 기쁨을 안고 인민들에게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할것인가를 놓고 생각을 거듭하였다.



봉사자의 영예는 인민의 기쁨속에 빛난다

얼마전에 3대혁명붉은기

쟁취한 창성군 창성각의 증명원들에게는 길은 지난해에 대한 잊을수 없는 추억이 소

베라살포망동은 북남관계파국의 근원

지금 북남관계는 피피당의 계속되는 도발적행위로 말미암아 수습할수 없는 파국의 나락으로 더욱 깊숙이 굴러떨어지고있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내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피피당은 지난 21일 악질 《탈북자》단체의 인간쓰레기들을 동원하여 우리 평화국을 반대하는 베라살포놀음을 끝낼때 강행하였다. 이번 베라살포망동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인내성있는 노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에 대한 용납 못할 우롱이고 모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피당은 베라살포로 인한 협박한 사태의 책임을 피하려면서 유사스러운 《대화》타령으로 우리를 계속 우롱하고있다. 이번 베라살포망동들이 벌어진지 이틀후인 지난 23일 피피통일부장관은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느니, 《대화로 해결할림장》이니 하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들의 베라살포는 《법적 근거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한하지 못한다.》는것이 저들의 입장이며 이것은 《법합치 유죄》될것이라는 실로 못된 수작을 늘어놓았다.

이것은 피피들에게 북남관계의 파국을 조장하는 반공화국베라살포소동을 중지 시킬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주고있다. 그들은 운운하는 《대화》타령이란 저들의 뿌리 깊은 대결적기도를 가리우기 위한 기간 전연사에 불과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반공화국베라살포망동은 북남사이의 대화를 가로막고 관계개선의 길에 장애를 조성하는 가장 엄중한 적대행위이다. 대화가 열리려면 그에 유리한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것이 상식이다. 결코만 대화를 부르짖고 돌아앉아서는 상대방을 협박으며 대결적인 행동만을 한다면 쌍방사이에 불신과 대립의

감정만 조장되게 되며 그것은 대화 그 자체에도 부정적영향을 주게 될것이다. 서로의 불신은 여전한데 마주앉아야 실질적으로 해결될것이 없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한 사실이 아닌가. 이것은 꼭질잡은 북남관계의 역사가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과 남의 대화와 신뢰를 바란다면 속에 품은 칼부러 버리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적대적 행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우리의 최고준엄과 제제를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는 범죄적인 베라살포행위와 상대방을 반대하는 가장 첫개는 적대행위이다. 그것은 사실상 총포사격도발보다 더 엄중한 최대악의 도발로서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서도 무조건 중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북남사이에 베라살포를 포함한 온갖 비방중상을 중지하는것을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의 개선을 위한 중대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남로 우심해지는 인간쓰레기들의 베라살포 놀음이 북남관계에 미치는 후파에 대하여도 여러차례에 걸쳐 남조선당국에 엄중히 경고하였다.

피피당국은 용담 우리의 경고와 충고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분별없이 날치는 너절한 인간추물들의 반공화국베라살포행위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문제는 피피당국이 그를 위한 수단을 가지고있으며 방도도 알고있다는데. 그럼에도 피피들은 《제제 상투성》이니 뽀니 하는것을 구실로 베라살포소동을 중지시킬수 없다고 변변스러운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인간쓰레기들의 망동을 뒤에서 적극 장려하고 부추기고있다. 그러면서 우리 북남사이에 아무 일도 없는것처럼 면피하게 《대화》를 하자고 강짜를 부리고있다.

과년도 말해서 최근 피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대화》를 운운하는것은 그들의 대결정책이 달라졌거나 우리에게 대한 어떤 선의로부터 출발한것이 결코 아니다. 피피당국이 남조선 각계의 한결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위한 대화 금강산관광제와 《5.24조치》의 해제를 거부하면서 외세와의 복잡 합동군사연습을 계속 벌여놓고있는것을 그들은 립중해준다. 피피당이 대화문제를 들고나오는것은 외세와의 공조밑에 벌이는 반공화국 《제제》와 군사적압력소동이 배후를 추진하는데가 최근 조선반도의 주변나라들이 우리와의 대화와 접촉에 잇달아 나서면서 저들이 고립되고있다. 이것은 그들의 위구심이 사료잡혔기 때문이다.

이런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대화》가 피피당의 반공화국베라살포소동을 정당화하는 공간으로 악용되는것을 용납할수 없다. 사실들은 남조선피피들이 남조선 당국에 대해 판심이 있다. 남로 대화와 아니라 파국을 노린 《대화》가 조진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 가 아니라 우리를 무장해제하기 위한 대항을 실현하기 위한 《대화》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다시금 명백히 하건대 대화와 베라살포망동은 결코 향립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그들의 대항에 판심이 있다. 남로 지금 대화상대방을 반대하여 벌려온 베라살포를 비롯한 온갖 반공화국적대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그대 대해 사죄하며 철저한 재발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대방을 반대하는 베라살포는 국제법에 명백히 정쟁행위로 공인되어있다. 허위와 날조, 기만과 위협공작 등으로 일관된 이런 심리전술들은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 더욱이 남조선당국이 벌려온 반공화국적대행위와 파국을 노린 《대화》를 하자고 강짜를 부리고있다. 과년도 말해서 최근 피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대화》를 운운하는것은 그들의 대결정책이 달라졌거나 우리에게 대한 어떤 선의로부터 출발한것이 결코 아니다. 피피당국이 남조선 각계의 한결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위한 대화 금강산관광제와 《5.24조치》의 해제를 거부하면서 외세와의 복잡 합동군사연습을 계속 벌여놓고있는것을 그들은 립중해준다. 피피당이 대화문제를 들고나오는것은 외세와의 공조밑에 벌이는 반공화국 《제제》와 군사적압력소동이 배후를 추진하는데가 최근 조선반도의 주변나라들이 우리와의 대화와 접촉에 잇달아 나서면서 저들이 고립되고있다. 이것은 그들의 위구심이 사료잡혔기 때문이다.

이런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대화》가 피피당의 반공화국베라살포소동을 정당화하는 공간으로 악용되는것을 용납할수 없다. 사실들은 남조선피피들이 남조선 당국에 대해 판심이 있다. 남로 대화와 아니라 파국을 노린 《대화》가 조진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 가 아니라 우리를 무장해제하기 위한 대항을 실현하기 위한 《대화》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다시금 명백히 하건대 대화와 베라살포망동은 결코 향립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그들의 대항에 판심이 있다. 남로 지금 대화상대방을 반대하여 벌려온 베라살포를 비롯한 온갖 반공화국적대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그대 대해 사죄하며 철저한 재발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대방을 반대하는 베라살포는 국제법에 명백히 정쟁행위로 공인되어있다. 허위와 날조, 기만과 위협공작 등으로 일관된 이런 심리전술들은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 더욱이 남조선당국이 벌려온 반공화국적대행위와 파국을 노린 《대화》를 하자고 강짜를 부리고있다. 과년도 말해서 최근 피피들이 그 어느

남조선 각계층 투쟁 전개

남조선의 민주로총이 24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피피당의 쌀시장개방행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로총연대투쟁을 선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농민들이 쌀시장을 개방하려는 《정권》에 분노를 표시하며 통성투쟁을 벌이고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협박한 판국을 만들어놓고도 천연스럽게 북남관계개선을 부르짖고있으니 이 얼마나 파렴치한자들인가. 속에 대결의 흑심을 품은 이런자들이 말끝마다 《신뢰》니, 《대화》니 하는것은 정말 역겹기 그지없다.

북남관계개선은 공허한 웨침이나 기만적인 말치레가 아니라 진정성있는 실천 행동으로만 이룰수 있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을 바란다면 뒤에서 못된짓만 골라가며 저지르고 앞에서 비방중상을 한지도, 베라살포를 목인 한지도, 비호한지도 없다고 아닌보살하는 철면피한 습성과 단호히 견결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무슨 《표현 및 발표, 결사의 자유》라는 당치않은 명명을 늘어놓으면서 인간쓰레기들의 베라살포 망동을 두둔할수록 저들의 뿌리깊은 대결중심만을 드러내보일뿐이다.

우리는 민족의 최고준엄을 립중해내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된다에 대해 한두 번만 선언하지 않았다. 민족의 최고준엄을 모독하는 베라살포놀음을 강행한 주모자, 가담자들은 결코 무사치 못할것이며 우리는 어느때든지 단호한 보복조치로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베라살포행위가 북남관계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가는 반통일외악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허영민

서 피피당의 쌀시장개방행동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이 전개되었다.

해남군에서는 여러 농민단체 대표들과 10여개 면의 농민회 성원들 등이 군청앞에서 집회를 가지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여당이 농민들에게 례를 지키라고 하지만 쌀시장개방문제를 민중에게 묻지도 않는자들에게 무슨 례를 지키겠는가고 격분을 터쳤다.

그들은 당국이 농민들에게 《면담을 신청하라.》고 하기에 저들이 먼저 농민들에게 개방문제를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고 규탄하였다.

집회에서는 투쟁결의문이 채택되었다.

결의문은 오늘의 투쟁을 시작으로 대규모항의운동에 떨쳐나설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에 맞서 쌀시장개방정책 동지저지 위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여 강도높이 벌려나갈것이라고 결의문을 강조하였다.

집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자동차시위에 나섰다.

한편 보성군에서도 농민들이 쌀시장개방의 위험성에 대한 선전활동을 벌린것을 비롯하여 이날 오후 15개 시, 군에서 농민들은 집회, 기자회견을 가지고 자동차와 트랙터를 선전활동과 시위를 벌이며 피피당의 악정에 항거하였다.

※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얼마전 남조선의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서울에서 피피당의 쌀시장개방행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민권적인 쌀시장개방과 관련한 회의가 시작되자 즉 시 회관에 진입하여 통성을 벌였다.

그들은 여당소속 《국회》의원들과 농민추진실무부 관계자들에게 담압과 고추가루분부를 던지면서 당국이 쌀시장개방행동을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인테넷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얼마전 광주와 전라남도의 여러 지역에

열망한 남조선연군이 폭로한데 의하면 미국과 피피들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시킬 때로서도 연군이 계속 협의하였다고 한다.

기존협약에 따르면 미국은 다 음해까지 피피들에게 전시작전 통제권을 넘겨주게 되어있다.

그런데 지난 4월 오바마의 남조선행각시 피피접진자가 그 전환시기를 다시 연기해달라고 구걸하면서 재연기론제가 제기되었다. 저들이 독자적인 선제 타격체제인 《킬 체인》과 미사일요격체제를 구축하는 2020년까지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수 없다는것이.

동족을 해치려는 남조선당국의 흉심을 잘 알수 있다.

최근 피피국방부가 밝힌데 의하면 미국과 피피접진자들은 그 무슨 《법합치위태세의 강화》를 위해 다음까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2사단의 주력파와 피피군 부대를 통합하여 남조선 전지역을 내외로 나누어 배치하였다. 피피군부호전정들은 연합사단의 창설목적은 군사분계선

지휘에 두고 아무런 거침도 없이 북침전쟁도발에 내몰수 있게 되었다. 미국이 저들의 북침전쟁도발에 내몰려 하는 데도 표모란 한 자존심도 없는 피피당국은 그 무슨 《동맹의 파괴》니, 《세계에서 처음》이니 하면서 상전에 대해 아양만 떨고있다. 이 얼마나 출세배진 매국노들인가.

남조선미국연합사단장실들을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

현재 피피들이 미국의 미사일 방위체제의 핵심인 고고도도격 미사일 《THAAD》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려 하는것도 상전과 주국의 강요되고있는 군사적결과의 한 측면이다. 피피접진자들은 《THAAD》의 남조선배치에 대해 《북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능력을 향상》시킬것이라고 하면서 적극 항명하고있다.

얼마전 대영컨터 상권을 찾아간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역도 《THAAD》의 남조선배치문제를 논의하였다고 한다. 미국과 피피들은 얼마 안있어 국제법 밖 남조선미국연합사단 배치를 회에서 《THAAD》의 남조선배치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려 하고있다.

미국의 미사일방위체제가 남조선에 배치되면 조선반도의 군사적강장은 더욱 격화되고 핵전쟁발발의 위험도 절정에 달할 것이다. 이것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정세를 파국에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불세로 된다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 각계는 북침을 위한 미국과의 군사적공조목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개선은 안중에도 없이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외세와 군사적공조목락에 피는이 되어 남침을 위한 남조선의 북침야망은 파국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자주통일의 길에도 커다란 장애가 조성되고 있다.

본사기자 은정철

극악한 대결광, 만고역적들은 력사와 온 민족의 선고를 명심하라

전쟁광신자의 가을뺨구기같은 소리

천하무죄한 박근혜가 60이 지난 나이에 치마바람을 일으키며 이번 유엔총회무대에서 짓어낸 얼토당토않은 수작들은 지금 우리 평양신문 전체 종업원들의 분노와 조소를 자아내고있다.

강히 우리의 핵을 악랄하게 걸고들고 싶지도 않는 《인권》 문제를 거들며 기업을 도하더니 《세계평화공원 조성》이 아니라 이젠 또 무슨 가을뺨구기같은 소리를.

대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피피들의 발광적인 북침전쟁도발소동으로 북남사이의 군사적강장이 군사분계선에 어 떻게 《평화공원》이라는것이 있을수 있겠나.

더우기 항수보다 화약배를 더 즐기는 극악한 전쟁광신자에게서 《평화》라는 말이 튀어나 온것은 그야말로 평화에 대한 장

역적 미국의 북침전쟁수인으로 살아온것도 모자라 상전이 넘겨주겠다는 전시작전통제권마저 안 받겠다고 발버둥치겠다는가.

박근혜는 때없이 주동기를 놀리다가는 더 큰 국제적망신과 조소를 불러일으킨다는것을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우리는 유엔무대에 가서까지 불꽃사나운 입질을 해대며 통증을 악의에 차서 헐뜯고 가는 곳마다 불집을 일으키는 피피접진자의 망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평양북도배급표식사업소 지매인 최성국

문제에 덮어치고 그런 허튼수작을 마구 할수 있었는가.

최근 피피군부에서 계속 드러나고있는 심각한 인권유린행위와 《세월》호참사는 남조선 이야말로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지대, 인권블모지라 하는것을 역설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상징에 모든것을 빼앗긴 신민지주, 정치매춘부에 불과한 피피파리가 민중이 《대통령》이람시고 국제무대에서 놀아대는 풀이한 참으로 역겹기 그지없다.

그 후한 면상을 죽량이 되도록 후려갈겨도 화가 풀리지 않을것 같다.

제 주체도 모르고 통족대결에 만 환장해 날뛰는 피피접진자와는 말이 통하지 않으며 오직 총대로 결심해야 한다는것이 우리 청년들의 하나같은 심정이다.

잡탕 놀린 허비파리 때문에 박근혜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강선일

이런 외세의존적이며 친미군주적인 태도는 내외의 비호와 향의규탄을 불러일으켰고 피피들은 세계의 면전에서 미국의 전쟁머슴군, 식민지노예로서의 추악한 진면모만을 날같이 드러냈다.

이번에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연기하기로 한것은 피피군의 통수권을 미국에 무한정 내맡겨주려는 기도의 발로이다. 미국이 언제까지나 군사적으로 의존하여 통제를 해치려는 피피도전정들의 흉악한 음모가 바로 여기에서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남조선의 핵대 반역통치배를 치고 외세의존에 환장하지 않은 자들이 없지않아 피피당국자를 처럼 돌려주겠다는 공통수권조차 받지 않았다.그 나자침하면서 상전의 바지가깁이를 붙잡고 북침전쟁도발행동에 광분한 역적들은 찾아붙었다.

지금 피피들이 미국과 함께 추진하고있는 연합사단창설을 음모 높이고 상전을 등에 업고

부근에 있는 《북의 장거리포를 타격하고 특수임무를 수행》하는데 있다고 내놓고 떠벌이고있다. 연합사단이 조직되면 사단장은 미군인, 부사단장은 피피군이 맡아 최전선임대를 작전지역으로 하여 평상시에는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유사시에는 통합되어 하나의 지휘체계에 따른 작전을 벌인다고 한다.

미국은 신속기동부대창설전략에 따라 남조선강점 미2사단을 이 미스트라이프장갑차 등을 배비한 신속기동부대로 개편하고있는 상태이다. 여기에 피피군의 기갑부대까지 배속되면 군사분계선일대에 위치한 통합기동부대가 출현하게 된다.

이것은 피피들이 북침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군사적공조목락에 갈수록 열을 올리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미국은 지금까지 연합군사령부를 통하여 피피군을 움직여왔다. 그런데 연합사단을 내오는 것으로 피피군을 미군의 단일한

은 2012년부터 추진되어온 문제이다. 당시 미제침략군은 동두천과 의정부에 있는 남조선 강점 미제침략군 2사단부대를 한강이남지역에 배치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친미사대와 외세의존이 체질화된 피피들은 미2사단부대가 한강이남지역으로 기지를 옮기면 《북의 장거리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없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미국을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미군에 애걸하였다. 그러면서 연합군부대세를 어떻게 하면 최상으로 유지하겠는지 다양한 논의를 하여야 한다고 떠벌이고 있다. 그 논의의 결과가 바로 피피군부대를 미2사단에 배속시켜 연합사단을 내오는 것이다. 지금 피피들은 연합사단이 조직되면 전쟁발발시 미군의 《사드포기》이 실현된다고 하면서 폐지를 울리고있다.

외세의 힘을 빌어 북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고 발광하는 이런 매국역적들을 우리 민족은

피피접진자가 유엔총회에서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을 또다시 걸고들며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면 《그때 발발하고 싶지 않다.》고 떠벌리고 있다. 개입이 상아가 나옴이 없었지만 박근혜의 도발적당담은 우리 천만민을 격분으로 치밀게 하고있다.

피피접진자가 이번 주체년

주체념은 나발

계도 우리를 《지연》하겠다고 날뛰리려는 했지만 이미전부터 남조선을 돌봐주고있는것은 다름아닌 우리이다.

바로 우리의 핵억제력이 있어 어떤 평화가 유지되는것이요 남조선사람들이 마음놓고 일러에도 나가며 생존을 유지하고있는 것이다.

얼마나 통족대결에 미쳤으면

회가 자기에게 차폐되었다면 그 동지들에게 기꺼이 양보하였을것입니다. 언젠가 함께 선동활동을 벌리는 동지들과 우리 선전대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서 그였습니까.

그해 7월 백이선동무는 또다시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된 여러 공적예술소조원들의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공연의 융합연출을 맡아하고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았다. 지난해에는 제3차 4월의 봄인민예술축전 공연에 참가하여 흥겨운 춤을 추고있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소개되고있다. 그리고 4월의 봄인민예술축전 공연에 참가하여 흥겨운 춤을 추고있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소개되고있다. 그리고 4월의 봄인민예술축전 공연에 참가하여 흥겨운 춤을 추고있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소개되고있다.

백이선동무는 46살의 한창 나이에 이렇게 갔다.

생의 마지막순간에조차 한몸 바쳐 투쟁하는 백이선동무, 융합기재락을 창조로 여기고 모든것을 보태준주던 나날과 잠시나마 잠들던 생각을 품었던 한 선전대원과 한밤을 지새며 잘못을 고쳐주고 선전대의 동무들에서 고쳐야 한다고, 경제선동활동에 더 잘해서 생애하는 원수님께 꼭 기쁨드리자고 당부하던 잊지 못할 그 그림의 이야기...

수도건설위원회 예술선전대원이었던 백이선동무는 지금 우리곁에 없다.

수도의 빛쟁생산지건설전투장에서 만난 그의 동지들은 우리를 융합기재락으로 이끌었다. 융합기재락앞에서 그들은 백이선동무에 대한 가지가지의 가슴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참된 삶의 가치는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는데 있습니다.》

지난 5월초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백이선동무는 조신속도창조의 열풍이 불어치는 위성파한지리건설장으로 나섰다.

침상에서 백이선동무가 건설장과 동무들을 못 건지게 그리워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불현듯 나타난 그로 맞은 예술선전대원들은 그를 눈곱이 끼지않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지난해 11월 불치의 병진단을 받은 백이선동무였던것이다.

《대 격정은 마시시오, 장쾌한 건설장을 몸과 잡고 구에 익은 나팔소리, 노래소리를 들어야 내 병도 차도가 있을것입니다.》

오허리 제편에서 동지들을 위로하듯 말하며 백이선동무는 자기의 손매를 융합기재락앞으로 다녔다.

지난 17년동안 융합기재를 제살살이처럼 여기고 눈동자와

융합기재를 돌도 없는 전두부기로, 융합기재락을 화신함으로 여기고 순간도 참호를 빌을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동무들은 다른 말을 더 할수 없었다.

융합효과 및 조정을 담당한 그때부터 17년동안 그는 언제나 자기의 참호-융합기재락을 뜨고 있고 모든 경제선동총무들의 총합적인 음악선물, 동 총무들의 성량과 음색, 매 악기들의 특성과 울림에 맞는 소리높이와 깊이를 잘듣고 조절해가며 시 작부터 마감까지 경제선동활동을 보강하여왔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는 단수대에게와 창건지리, 은하파한지리, 불꽃의 기념비적건축물마다 애는 백이선동무의 불같은 열정과 노력으로 그는 수도건설위원회 예술선전대에게 경제선동경연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니것을 비롯하여 전두부기, 기동성, 호소성과 감화력이 큰 경제선동활동성과로 당의 수도건설수상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이런 백이선동무에게 불치의 병이라는 진단을 받고서도 절망과 비탄을 모르고 위성과파

자리건설전투장에서 불사신처럼 경제선동활동을 강인하게 벌려나갔다.

《위성파한지리건설전투장에서의 하루하루는 그에게 있어 사막그대로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두부의 편속이였습니다.》

《시각각각 엄습하는 모진 동풍속에서도 융합기재락을 뜨지 않고 전두부기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쪽 경주공원과 텔레비전방송야회, 수심시계의 경제선동활동을 보강하는 백이선동무에 대해서는 우리 선전대원들은 내내 눈시울을 적시곤 하였습시다.》

그해 백이선동무의 생명지표는 그야말로 마지막계선으로 내려가고있었다고 하면서 대장 영도동무와 당세포시 박철동무를 비롯한 선전대원들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때 수도건설위원회 예술선전대가 출연한 시랑송 《나는 로동자의 아들이다》를 준비하던 나날 백이선동무는 한련의 강동을 선물을 들고기 위해 수많은 융합자료를 들으며 밤을 꼬박박히기도 하고 그것도 성차지 않아 반쪽있는 융합전문가의 방조를 받으며 훌륭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한몫 단란히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된 영광의 공연무대에서 출연자들이 환희에 넘치는

수도건설위원회 예술선전대원이었던 백이선동무

융합속에 시를 랑송하였을 때 백이선동무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여있었다고 박철, 김동호동무들은 경정을 안고 추억하였다.

그해 7월 백이선동무는 또다시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된 여러 공적예술소조원들의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공연의 융합연출을 맡아하고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았다. 지난해에는 제3차 4월의 봄인민예술축전 공연에 참가하여 흥겨운 춤을 추고있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소개되고있다. 그리고 4월의 봄인민예술축전 공연에 참가하여 흥겨운 춤을 추고있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소개되고있다.

참된 인간의 아름다운 생의 메아리

수도건설위원회 예술선전대원이었던 백이선동무

융합속에 시를 랑송하였을 때 백이선동무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여있었다고 박철, 김동호동무들은 경정을 안고 추억하였다.

그해 7월 백이선동무는 또다시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된 여러 공적예술소조원들의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공연의 융합연출을 맡아하고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았다. 지난해에는 제3차 4월의 봄인민예술축전 공연에 참가하여 흥겨운 춤을 추고있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소개되고있다. 그리고 4월의 봄인민예술축전 공연에 참가하여 흥겨운 춤을 추고있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소개되고있다.

생활의 굵이굵이에서 동지들을 위해 진정을 바쳐서 백이선동무의 고결한 동지정리와 품도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지난 8월 24일 평양에서 열린 회담이 윤석희조차 어려울수에서도 10여일동안 수많은 선물을 고르고콜라 만든 융합자료를 가지고나와 선전대원에게 예술소품공연을 성과적으로 보강한 백이선동무는 끝내 쓰러졌다.

이름날 그는 당세포시와 예술선전대동지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잘 만들어 모시겠습니다. 언제나 회복한 집안으로, 우리 원수님께 아시는 선전대원, 살아있는것은 선전대로 내뿜기 위해 활동해주시는 간결이 바랍니다. 조신속도창조에서 우리 마르기로, 융합조절자로, 고성기로 울릴수 있습니다.》

백이선동무는 46살의 한창 나이에 이렇게 갔다.

생의 마지막순간에조차 한몸 바쳐 투쟁하는 백이선동무, 융합기재락을 창조로 여기고 모든것을 보태준주던 나날과 잠시나마 잠들던 생각을 품었던 한 선전대원과 한밤을 지새며 잘못을 고쳐주고 선전대의 동무들에서 고쳐야 한다고, 경제선동활동에 더 잘해서 생애하는 원수님께 꼭 기쁨드리자고 당부하던 잊지 못할 그 그림의 이야기...

수도건설위원회 예술선전대원이었던 백이선동무는 지금 우리곁에 없다.

수도의 빛쟁생산지건설전투장에서 만난 그의 동지들은 우리를 융합기재락으로 이끌었다. 융합기재락앞에서 그들은 백이선동무에 대한 가지가지의 가슴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참된 삶의 가치는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는데 있습니다.》

지난 5월초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백이선동무는 조신속도창조의 열풍이 불어치는 위성파한지리건설장으로 나섰다.

침상에서 백이선동무가 건설장과 동무들을 못 건지게 그리워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불현듯 나타난 그로 맞은 예술선전대원들은 그를 눈곱이 끼지않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지난해 11월 불치의 병진단을 받은 백이선동무였던것이다.

《대 격정은 마시시오, 장쾌한 건설장을 몸과 잡고 구에 익은 나팔소리, 노래소리를 들어야 내 병도 차도가 있을것입니다.》

오허리 제편에서 동지들을 위로하듯 말하며 백이선동무는 자기의 손매를 융합기재락앞으로 다녔다.

지난 17년동안 융합기재를 제살살이처럼 여기고 눈동자와

융합기재를 돌도 없는 전두부기로, 융합기재락을 화신함으로 여기고 순간도 참호를 빌을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동무들은 다른 말을 더 할수 없었다.

융합효과 및 조정을 담당한 그때부터 17년동안 그는 언제나 자기의 참호-융합기재락을 뜨고 있고 모든 경제선동총무들의 총합적인 음악선물, 동 총무들의 성량과 음색, 매 악기들의 특성과 울림에 맞는 소리높이와 깊이를 잘듣고 조절해가며 시 작부터 마감까지 경제선동활동을 보강하여왔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는 단수대에게와 창건지리, 은하파한지리, 불꽃의 기념비적건축물마다 애는 백이선동무의 불같은 열정과 노력으로 그는 수도건설위원회 예술선전대에게 경제선동경연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니것을 비롯하여 전두부기, 기동성, 호소성과 감화력이 큰 경제선동활동성과로 당의 수도건설수상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이런 백이선동무에게 불치의 병이라는 진단을 받고서도 절망과 비탄을 모르고 위성과파

자리건설전투장에서 불사신처럼 경제선동활동을 강인하게 벌려나갔다.

《위성파한지리건설전투장에서의 하루하루는 그에게 있어 사막그대로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두부의 편속이였습니다.》

《시각각각 엄습하는 모진 동풍속에서도 융합기재락을 뜨지 않고 전두부기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쪽 경주공원과 텔레비전방송야회, 수심시계의 경제선동활동을 보강하는 백이선동무에 대해서는 우리 선전대원들은 내내 눈시울을 적시곤 하였습시다.》

그해 백이선동무의 생명지표는 그야말로 마지막계선으로 내려가고있었다고 하면서 대장 영도동무와 당세포시 박철동무를 비롯한 선전대원들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때 수도건설위원회 예술선전대가 출연한 시랑송 《나는 로동자의 아들이다》를 준비하던 나날 백이선동무는 한련의 강동을 선물을 들고기 위해 수많은 융합자료를 들으며 밤을 꼬박박히기도 하고 그것도 성차지 않아 반쪽있는 융합전문가의 방조를 받으며 훌륭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한몫 단란히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된 영광의 공연무대에서 출연자들이 환희에 넘치는

수도건설위원회 예술선전대원이었던 백이선동무

융합속에 시를 랑송하였을 때 백이선동무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여있었다고 박철, 김동호동무들은 경정을 안고 추억하였다.

그해 7월 백이선동무는 또다시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된 여러 공적예술소조원들의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공연의 융합연출을 맡아하고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았다. 지난해에는 제3차 4월의 봄인민예술축전 공연에 참가하여 흥겨운 춤을 추고있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소개되고있다. 그리고 4월의 봄인민예술축전 공연에 참가하여 흥겨운 춤을 추고있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소개되고있다.

생각의 굵이굵이에서 동지들을 위해 진정을 바쳐서 백이선동무의 고결한 동지정리와 품도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지난 8월 24일 평양에서 열린 회담이 윤석희조차 어려울수에서도 10여일동안 수많은 선물을 고르고콜라 만든 융합자료를 가지고나와 선전대원에게 예술소품공연을 성과적으로 보강한 백이선동무는 끝내 쓰러졌다.

이름날 그는 당세포시와 예술선전대동지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잘 만들어 모시겠습니다. 언제나 회복한 집안으로, 우리 원수님께 아시는 선전대원, 살아있는것은 선전대로 내뿜기 위해 활동해주시는 간결이 바랍니다. 조신속도창조에서 우리 마르기로, 융합조절자로, 고성기로 울릴수 있습니다.》

백이선동무는 46살의 한창 나이에 이렇게 갔다.

생의 마지막순간에조차 한몸 바쳐 투쟁하는 백이선동무, 융합기재락을 창조로 여기고 모든것을 보태준주던 나날과 잠시나마 잠들던 생각을 품었던 한 선전대원과 한밤을 지새며 잘못을 고쳐주고 선전대의 동무들에서 고쳐야 한다고, 경제선동활동에 더 잘해서 생애하는 원수님께 꼭 기쁨드리자고 당부하던 잊지 못할 그 그림의 이야기...

유엔총회 제 69차회의에서 27일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인 리수용의무상이 연설하였다.

단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5년 이후 변혁적인 개발의장성과 리행>이 본회의의 주제로 설정된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개발은 평화와 함께 인류공동의 지속적발전을 위한 2대기둥을 이루고있는 유엔의 핵심사명인 것이다.

세계는 새 천년기에 들어선 때로부터 지금까지 빈곤층이 절반으로 줄어든것을 목격하였다.

2000년에 있는 새 천년기 유엔수뇌회의에서 채택된 빈곤 청산을 골자로 하는 천년개발목표가 훌륭히 달성되었다는것을 보여주는 성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 이 시기가 특별히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리 역시 준엄한 난국을 성공적으로 이겨냈다.

공화국에 대한 경제적봉쇄와 군사적 위협, 정치 적적 압박이 진행되어 집요한 반인위대 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밑에 민족의 존엄을 빛나게 수호하고 전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있고 침체에 빠졌던 경제를 상승의 궤도에 올려세웠다.

경제하는 김정원수님의 령도밑에 오늘날 마침내 강성국가로 비약할수 있는 든든한 도약을 갖추었다.

지금 공화국에서는 건설의 대변영기 가 펼쳐지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공장과 기업소들이 곳곳에서 기록적인 속도로 일떠서고있다.

수산업과 축산업에서 일대 비약이 일고있고 후대들과 근로대중을 위한 생활환경과 문화분야에서 새로운 21세기의 문명이 꽃피고있다.

지금 유엔의 중심적역할을 높

유엔총회 제 69 차 회의에서 우리 나라 대표 단 장 연 설

2015년 이후의 개발의정은 천년개발목표리행과정에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인류공동의 지속적인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2대기둥을 마련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할것이다.

지구생태환경을 보호하며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여 인류의 생존과 지속적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유엔적인 행동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수뇌회의는 성과적인 회합이었다.

유엔과 국제관계가 보다 민주화되어 한다.

유엔헌장에 명기되어있는 주권평등의 원칙은 곧 자주권존중의 원칙, 내정간섭의 원칙이다.

<민주주의>, <인도주의사태>, <반테러>, <인권보호>, <전과방치>와 같은 여러가지 미명의로 은폐된 강간과 처형이 제재와 봉쇄, 군사적위협과 무력간섭의 형태로 배척이 감행되고있는것이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있는 현실이다.

우리 대표단은 주권국가들에게 내린 온갖 형태의 간섭과 제재를 반대하는 일관한 입장으로 부터 쿠바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경제, 무역, 금융봉쇄가 하루빨리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화와 안전은 유엔의 영원한 주제이다.

인류의 생존도, 지속적인 개로도, 인권의 보호도 증진도, 지구생태환경의 보존도 모두 평화와 안전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지금 유엔의 중심적역할을 높

이는데서 제일 뒤편에서있는것이 평화와 안전을 위한 기능과 역할이다.

헌장에 명기된바와 같이 유엔성원국들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의 첫째가는 책임을 안보리사회에 부과하였다.

냉전시기의 마비상태에서 아직 풀려나지 못한 안보리사회를 대신하여 한 상임리사국이 유엔과는 인연이 없는 군사행력이나 쌍무군사동맹들을 통하여 <국제헌법>노릇을 하려들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안보리사회의 시대착오적인 구태와 편견은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사태에서 가장 우습게 나타나고있다.

세계는 지난해에 조선반도정세가 일축축발의 전쟁경쟁에까지 치달았던 사실을 기억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점령>을 목표로 한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이 그 발단이었다.

올해 1월 공화국은 조선반도에서 호상 군사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할때 대한 제안을 내놓았으나 도달적인 반공화국합동군사연습은 3월과 4월에 도강행되었고 8월에도 또 강행되었다.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하는 이러한 전쟁연습을 중지시킬때 대한 문제를 정식으로 안보리사회에 제소하였다.

그러나 안보리사회는 이를 외면하였다.

상임리사국이 주도하는 합동군사연습이기에문은 그 규모가

아무리 방대하고 그 목적이 아무리 침략적이고 그 성격이 아무리 위협해도 안보리사회는 논과 귀, 입을 막을수밖에 없는것이다.

냉전시기도 동서방사이에 병력 4만명이상이 참가하는 규모의 1세가 되어서는 그 회수를 제한하는 조치가 있었다.

하물며 냉전이 종식된지도 4분의 1세가 되어오는 오늘 조선반도에서만 해마다 한번에 50만명이 넘는 대병력이 참가하는 전쟁연습이 왜 필요한가 하는것이다.

현시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연습은 그 회수를 제도화하고 있다.

한 상임리사국이 벌여놓는 군사연습은 아무리 평화와 안전을 위협해도 눈감아주고 그에 대처하여 한 유엔성원국이 진행하는 군사훈련은 아무리 부득이하고 자위적인것이라고 해도 한사코 달랠아들지 못해서하는 불공정한 행위는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

한 상임리사국의 비호를 받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간간 학살행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려는 수리아정부에 대해서만 문제시하는것과 같은 부당한 처사는 용납할수 없다.

특히 <반테러>의 미명하에 수리아의 자주권과 영토안정을 침해하고 그 어떤 행위로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안보리사회는 더이상 거짓말을 늘어놓는 연단으로 되지 말아야 한다.

11년전 우리는 안보리사회에서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한 상임리사국의 고발을 두루로 들었다.

군사적침범이 뒤따르고 참혹한 류형이 초래된 후야마 세계는 그 말이 세기적인 큰 거짓말이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큰 거짓말을 한

것을 더는 허우하지 말아야 한다.

현 안보리사회의 구성과 사업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것은 이미 유엔총회 제 47차회의 결의에 반영된 유엔성원국들의 총의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안보리사회는 더이상 이중기준의 극치를 보여주는 진시장이 되지 말아야 한다.

안보리사회는 더이상 강권과 전횡의 도구노릇을 하지 말아야 한다.

헌장은 안보리사회가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맞게 행동할것을 규제하고있다.

안보리사회는 우주조약과 같은 국제법에 저촉되게 유엔성원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금지시키는 결의를 채택할 권한이 없다.

안보리사회를 개혁하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유엔의 민주화,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하나의 혁명이다.

유엔은 군주제가 아니며 안보리사회는 원로국이 아니다.

상임리사국들이 진심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자기의 특권을 포기할 용단을 내리지 않는 한 개혁은 불가능하다.

<민주주의수출>을 제일 소리 높여 제창하는 상임리사국은 이 시대적요구, 유엔성원국사들의 요구앞에 자기의 실의가 위선자가 아닌가를 비추어보아야 할것이다.

안보리사회가 자신을 제때에 개혁하지 못하여 끝내 시대의 락오자로 된다면 유엔성원국들은 그러한 시대착오적이고 비민주주의적인 기관이 아예 없는 유엔을 바라게 될지도 모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강권이나 전횡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유엔헌장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것이다.

이런대통령 하선 루하나가 22일 <성스러운 방위주간에 즈음하여 진행된 열병식에서 연설하면서 적들의 압력에 계속 맞서나갈 립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페르넷의말걸음이 핵문제를 구실로 이탄에 제제를 가하는 등 압력행동에 열을 올리

고있지만 이란인민은 자기의 평화적행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적들의 그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기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전염병방지사업을 강화할것을 호소

모리타니대통령 모하메드 울드 아브델아지즈가 24일 유엔총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전염병방지사업을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최근 서아프리카지역에서 발생한 에볼라바이러스가 커다란 도전으로 된다고 하면서

일본집권자의 역사인식에 경고

영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18일 2014년판 <전략개관>을 발표하여 일본집권자의 그릇된 역사인식에 대해 경고를 올렸다.

<전략개관>은 과거 식민지시대에 대한 역사인식을 재검토하

나라가 상임리사국이였기때문에 안보리사회는 또다시 침묵하였으며 결과 류형사태는 1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지속되고있다.

안보리사회는 더이상 강권과 전횡의 도구노릇을 하지 말아야 한다.

헌장은 안보리사회가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맞게 행동할것을 규제하고있다.

안보리사회는 우주조약과 같은 국제법에 저촉되게 유엔성원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금지시키는 결의를 채택할 권한이 없다.

안보리사회를 개혁하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유엔의 민주화,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하나의 혁명이다.

유엔은 군주제가 아니며 안보리사회는 원로국이 아니다.

상임리사국들이 진심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자기의 특권을 포기할 용단을 내리지 않는 한 개혁은 불가능하다.

<민주주의수출>을 제일 소리 높여 제창하는 상임리사국은 이 시대적요구, 유엔성원국사들의 요구앞에 자기의 실의가 위선자가 아닌가를 비추어보아야 할것이다.

안보리사회가 자신을 제때에 개혁하지 못하여 끝내 시대의 락오자로 된다면 유엔성원국들은 그러한 시대착오적이고 비민주주의적인 기관이 아예 없는 유엔을 바라게 될지도 모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강권이나 전횡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유엔헌장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것이다.

이런대통령 하선 루하나가 22일 <성스러운 방위주간에 즈음하여 진행된 열병식에서 연설하면서 적들의 압력에 계속 맞서나갈 립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페르넷의말걸음이 핵문제를 구실로 이탄에 제제를 가하는 등 압력행동에 열을 올리

고있지만 이란인민은 자기의 평화적행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적들의 그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기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전염병방지사업을 강화할것을 호소

모리타니대통령 모하메드 울드 아브델아지즈가 24일 유엔총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전염병방지사업을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최근 서아프리카지역에서 발생한 에볼라바이러스가 커다란 도전으로 된다고 하면서

일본집권자의 역사인식에 경고

영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18일 2014년판 <전략개관>을 발표하여 일본집권자의 그릇된 역사인식에 대해 경고를 올렸다.

<전략개관>은 과거 식민지시대에 대한 역사인식을 재검토하

주권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선반도핵문제는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한 유엔성원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다.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 압살전략이 필연적으로 가져온것이 바로 공화국의 핵보유결단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억제력은 그 누구를 위협하거나 그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것이 아니며 그 무엇과 바꾸어먹을 흥정물은 더더욱 아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완전히 종식되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 실질적으로 제거된다면 핵문제는 풀릴것이다.

인권문제에서 정치화와 선례시, 이중기준이 극복되어야 한다.

인권문제를 정치적목적에 도용하는것이아말로 인권 그자체에 대한 가장 큰 유린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권문제를 특정한 국가의 제도건부에 도용하려는 온갖 시도와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 인민의 인권이 집대성된 국가주권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이는 미국이 우리의 <인권문제>에 대해 걸고드는것은 위선이다.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에 그 당사자가 참가하겠다는것을 기어이 가로막으면서도 <인권대화>에 대해 운운하는것은 연어도단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중앙통신]

미국에서 화재로 수백편의 비행기운행 취소, 일대 혼란

미국 일리노이스주의 오로라에 있는 링방항공시설에서 26일 화재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수 많은 비행기운행이 취소되는 등 일대 혼란이 조성되었다.

신설 <시카고 트리뷴>은 시카고의 어우해어국제비행장과 미드웨이비행장에서 700편의 비

행기운행이 취소되고 600편이 연기되었다고 밝혔다.

사우스웨스트항공회사는 모든 비행기운행이 취소되는 등 일대 혼란이 조성되었다.

신설 <시카고 트리뷴>은 시카고의 어우해어국제비행장과 미드웨이비행장에서 700편의 비

행기운행이 취소되고 600편이 연기되었다고 밝혔다.

사우스웨스트항공회사는 모든 비행기운행이 취소되는 등 일대 혼란이 조성되었다.

신설 <시카고 트리뷴>은 시카고의 어우해어국제비행장과 미드웨이비행장에서 700편의 비

행기운행이 취소되고 600편이 연기되었다고 밝혔다.

사우스웨스트항공회사는 모든 비행기운행이 취소되는 등 일대 혼란이 조성되었다.

신설 <시카고 트리뷴>은 시카고의 어우해어국제비행장과 미드웨이비행장에서 700편의 비

행기운행이 취소되고 600편이 연기되었다고 밝혔다.

사우스웨스트항공회사는 모든 비행기운행이 취소되는 등 일대 혼란이 조성되었다.

신설 <시카고 트리뷴>은 시카고의 어우해어국제비행장과 미드웨이비행장에서 700편의 비

행기운행이 취소되고 600편이 연기되었다고 밝혔다.

사우스웨스트항공회사는 모든 비행기운행이 취소되는 등 일대 혼란이 조성되었다.

신설 <시카고 트리뷴>은 시카고의 어우해어국제비행장과 미드웨이비행장에서 700편의 비

온갖 정치적동기와 위선파는 인연이 없이 진정으로 인권을 위한 대화, 인권을 위한 협력에는 문을 열어놓고있다.

공화국정부는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는 나라들과 평등한 기초에서 인권대화와 협력을 해나갈 용의가 있으며 유엔을 비롯한 해당 국제기구들과 인권분야에서 기술협조와 접촉, 의사소통을 도모해나갈 용의가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민족의 통일을 제도대개의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공화국정부는 북남관계를 명실공히 편방제통일에 지향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공통문제를 미국에 통째로 맡긴것으로 하여 자기 땅에 조선민족을 열면도 자기 땅에 있는 각종 대량살상무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있는지도 모르는 남조선은 현실불가하며 허황한 남의 식의 민족통일방안을 들고다닌지 말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본회의에서 2015년이후의 개발의장성에 건설적으로 참가하여 다음에 유엔총회 70회를 맞으며 개발의장이 성과적으로 채택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할것이라는것을 확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적지침은 자주, 평화, 친선이다.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에 그 당사자가 참가하겠다는것을 기어이 가로막으면서도 <인권대화>에 대해 운운하는것은 연어도단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중앙통신]

인권이 최상의 경지에서 보장되는 조선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가 18일 인터넷포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권보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17살이상의 모든 공민들이 성별, 민족별, 직업별,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경, 신앙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에서는 인민들의 정치적 권리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되고있다.

모든 사람들이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하고있으며 언론, 출판, 집회, 신앙의 권리가 법적

나이제리아단체 인터넷에 글 게재

으로 담보되고있다.

작위와 억압, 부정부, 빈익빈이 존재하지 않는 조선에서는 누구나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으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사회적 모든 성원들이 노동과 휴식의 권리, 무료교육과 무상치료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비롯하여 온갖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받고있는 나라가 바로 조선인이다.

조선에서는 실업자를 찾아볼수 없다.

전반적 12년제의 무료교육제가 실시되고있으며 누구나 학비라는 말조차 모르고 배우는 권리

를 마음껏 향유하고있다.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심심산골이든, 자그마한 섬이든 학교가 일떠서 배움의 글소리가 울려다진다.

대학과 전문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이 장학금까지 받으며 공부한다.

조선에서는 누구나 무상치료를 받을수 있고있다.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에 국가가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최근년간 평양에 훌륭히 일떠선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창건거리, 은하과학자거리 등에는 평범한 교민, 연구사들을 비롯한 근로자들도 한푼 내지 않고 입사하였다.

들물 사람이 없는 늪은이들과 어린이들, 장애인들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펴주고있다.

년경들은 남생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있을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혜택을 받고있다.

조선에서 인권이 훌륭히 보장되고있는것은 주체사상에서 지도사상으로 하고있기때문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세계에서 가장 힘있고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며 모든것이 사람을 위하여 부무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창조되는 조선에서 인권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한것이다.

미국의 반쿠바봉쇄책동 단죄

엘 쟈바도르의무상이 15일 쿠바의 브랜사 파라마리온투파의 회견에서 미국의 반쿠바

반쿠바봉쇄책동 단죄

봉쇄책동을 단죄하였다.

그는 쿠바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봉쇄책동은

이곳에는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다. 150억 t 이상의 석탄, 90억 t의 원유, 약 14 조㎟의 가스 그리고 여러가지 희유금속들이 방대하게 매장되어있다.

차할민주주의 하바르스크변강, 연해변강에서 개발되고있는 원유와 천연가스는 원동지역의 경제발전에서 주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다.

이곳에서 기초한 립업, 팜업, 금속공업의 발전정도는 매우 좋다.

세계 3대어정의 하나를 기고있는것으로 하여 수산업과 물고기가공업이 발전하고있다.

원동의 지형학적위치 또한 가치있다.

2차 세계대전시기에 기업에 소련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소개되어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후방기지로 역할한데 대해서는 세상이 아는 사실이다.

오늘에 와서 원동지역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에 대한 원유와 천연가스수출원지인 동시에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수송로로서 그 지위가 자못 커지고있다.

유라시아대륙의 일화해권역을 내세우고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과 협력관계를 긴밀히 하고있는 로씨야정부에 있어서 원동지역개발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가 하는것은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

때문에 지난 한해동안 로씨야정부는 원동지역의 큰물피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을 나라의 경제발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보고 중시하게 내밀었다.

적지 않은 성과가 이룩되었다. 모든 피해자들이 정상생활로 돌아가고 하부구조공사사업이 완결되었다.

사외공공사업들과 전력선들, 도로망이 복구되었다.

국제법에 배치된다고 비난하였다.

봉쇄는 간섭의 표현이라고

피해지역의 곳곳을 밟아보고 주민들과 담화도 하며 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한 부견대통령은 원동지역발전과 관련한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원동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적지원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뒤이어 위스프르츠는이우주로케트발사장건설과 관련한 회의가 열렸다.

대통령은 위스프르츠는이우주로케트발사장건설은 외국자의 발사장건설에 이르기까지 앞으로의 발사장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점을 하나하나 추진시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원동지역발전의 추동력인 위스프르츠는이우주로케트발사장건설을 다그쳐 2015년 12월에는 첫 우주기구발사를, 2018년에는 유인우주비행선발사를 진행할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었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몇달전에 비준된 립방계획 <2018년까지의 원동 및 자바리강 지역의 사회경제발전>에 따라 로씨야정부는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40개의 비행장, 1개의 항공, 600여km의 자동차도로, 바이칼-아무르간선철도 등 운수하부구조의 건설 및 개선을 계획하고 다그치고있다.

강력한 국가건설을 지향하여 몇차례나 로씨야정부와 인민의 노력에 의하여 원동지역은 날로 변모될것이다.

본사기자

하면서 그는 자기 나라 정부는 쿠바에 대한 내정간섭에 목적을 둔 미국의 봉쇄책동을 반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라진 의존심, 높이 든 자립의 가치

자주적인 사회건설에 나선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남에 대한 환상적인 유례롭고 위험한것은 없다.

언제인가 나이제리아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은 <서방나라들은 <원조>를 리용하여 우리의 한쪽 주머니에 1 US\$를 넣어주고 다른쪽 주머니에서 1 OUS\$를 꺼내가고있다.>고 비평한바 있다.

현실적으로 지구상에 제국주의의 <원조>를 받아 부유해진 나라는 없다.

저들을 <구세주>로 묘사하며 내혼드는 제국주의자들이 <원조>는 본질에 있어서 하늘을 주고 열, 백을 빼앗는 탁탈도구이며 경제적예속의 울가미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사회경제적진보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는 외세에 대한 의존성을 버리고 자체의 힘에 의거한 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이다.

이것을 자각한 세대 젊은 나라들이 민족경제토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있다.

수입전반부 위기 농업을 꾸준히 발전시켜 그 덕을 보았다는 쿠바에서 생물학자교공장이 조업하였다.

년간 400만명의

미군의 무인기공습만행 규탄

미군이 <반테러>의 미명하에 파키스탄에 대한 무인기공습을 또다시 감행하였다.

24일 미군무인기가 북부와 지리산지역 상공에 날아들어 2기의 미싸일을 발사하였다.

결과 10명의 무고한 주민